

제429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정기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13일(목)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산업통상부 소관
나. 지식재산처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산업통상부 소관
3.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212670)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1
가. 산업통상부 소관
나. 지식재산처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2
가. 산업통상부 소관
3.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212670) 2

(10시04분 개의)

○소위원장 장철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산업통상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 진행 순서를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작은 지식재산처 소관부터 심사한 다음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소관 그리고 제1차관 소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본회의 상황에 따라서 오후 회의 속개 시간을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산업통상부 소관

나. 지식재산처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산업통상부 소관

3.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의안번호 2212670)

○소위원장 장철민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별·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세부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별 예산 증감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는 수용 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항목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보류하였다가 추후 보류 항목만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식재산처 소관 연번 1번 사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번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6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지식재산처 소관 자료입니다.

일반회계 연번 1번입니다. 특허심사 지원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국내특허 선행기술조사 사업은 심사 적체 해소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33억 6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지식재산처는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위원 지식재산처는 다 증액이야.

○소위원장 장철민 증액이 많이 필요해요. 너무 적게, 정부안 자체의 증액 비중이 실제로 너무 적더라고요.

위원님들 다 동의 의견이시기 때문에 33억 61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번 사업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연번 2번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지자체 매칭 수요액 대비해 국비 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지식재산처는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3번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연번 3번입니다. 지식재산연구 활성화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지식재산처의 총괄 대상 및 소관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지원 예산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저희들도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4번 특허기술조사분석입니다.

내역사업인 상표 빅데이터 분석 사업은 기업 맞춤형 경영·브랜드 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지식재산처는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2쪽입니다.

연번 5번 IP-R&D 전략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지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은 AI·바이오 분야 맞춤형 R&D 전략 지원을 위해서 108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으로 정리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6번입니다.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전략 지원입니다.

이것은 부대의견입니다.

지식재산처는 과제 수행 시 1단계 초기모델 검증을 넘어 2~3단계 데이터 관리, 제품화 및 생산공정을 포함한 로드맵 설계를 병행하고 우수특허의 실질적인 사업화를 위해 사업 설계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지식재산처는 부대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승규 위원** 특별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해당 부대의견은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7번입니다. 발명교육 활성화입니다.

발명교과 지도 연수 및 기존 발명교원에 대한 재교육 등 발명교원 육성 예산 13억 62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지식재산처는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연번 8번입니다.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입니다.

먼저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사업은 과거 실적이 부진하고 중기부의 협업형 메이커스페이스 사업과 중복성이 있으므로 52억 5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제안된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한 해결책으로 고도화하기 위해서 멘토링 단가 23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또 밑에 취업준비생 및 R&D 퇴직인력을 IP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신규 내역사업 추진을 위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지식재산처는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기존 사업과 사업 범위가 다르고 중기부 등 타 부처 사업과도 차별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하기 위한 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해서는 단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강승규 위원님이 감액 의견을 주셔서……

○**강승규 위원** 중기부 협업형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보세요.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본 사업의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고도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발굴되고 고도화된 아이디어 자체를 구체적 제품으로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 사업은 지원 범위와 단계가 상이하고요. 오히려 상호보완적으로 저희들 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아이디어가 중기부 창업지원 사업과 후속 연계되는 체제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승규 위원** 정부 의견 통해 제가 감액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감사합니다.

그런데 증액 의견이 2건입니다. 아까 차장님께서 밑에 IP 전문인력 관련된 신규 내역 사업 3억 증액은 동의하신 것으로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신 것 같은데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23억 1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 주시지는 않아서……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것은 동의하고 밑엿것을……

○소위원장 장철민 아, 밑엿것을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증액 의견 2건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예, 2건에 대해서 증액 의견에 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승규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 철회하셨으므로 이 2건에 대해 증액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것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9번입니다. 모태조합 출자입니다.

800억 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을 위해서 정부출자비율을 고려한 신규 예산 40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지식재산처는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0억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0번입니다.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 우대요건 신설에 소요되는 5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지식재산처는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5억 3000만 원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1번입니다.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시스템 구축 ISP/BPR 사업의 신규 예산 26억 28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지식재산처는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2번입니다.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사업은 해외IP센터 신규 개소 등을 위해서 15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내역사업인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사

업은 K-브랜드 무단선점 행위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지식재산처는 2건 모두에 대해서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2건 다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연번 13번입니다. 기술 분쟁대응 지원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은 특허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44억 9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내역사업인 NPE 위기대응 기반 구축 사업은 NPE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내역사업인 AI활용 영업비밀·기술 유출방지 지원 사업은 AI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지식재산처는 3건 모두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건 모두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4번 지식재산보호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증액이나 삭감이 아닌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원안 유지는 정부 의견은 안 여쭙봐도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따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5번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수사·단속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부정경쟁행위 단속지원 사업은 모니터링단의 충원 및 AI 모니터링 고도화를 위해서 19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그 외에 6억 4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지식재산처는 19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같은 내용이므로 19억 7000만 원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6번 인건비입니다.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에 따라서 인건비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지식재산처는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7번입니다. 지식재산분쟁대응국 기본경비입니다.

신설된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운영을 위해서 기본경비 3억 54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지식재산처는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 여쭙볼게요.

15번 연번에 제가 한 카테고리에 있어서 같은 사업, 같은 항목이라고 인식했는데 이것 맞나요? 15번, 19억 7000만 원으로 증액하면 되는 것은 맞나요?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예.

○소위원장 장철민 합쳐야 되는 것은 아니고 19억 7000만 원 안에 포함돼 있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모니터링단 역량강화하고 AI 모니터링 정확도 제고가 AI 모니터링 고도화하고 유사하다고 봤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지금 배포되고 있는데요.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해 정리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한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지식재산처 소관에 대한 예산안 소위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816억 4000만 원 증액해서 총예산안의 세출 증가액은 816억 4000만 원입니다.

부대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지식재산처는 과제 수행 시 1단계 초기모델 검증을 넘어 2~3단계 데이터 관리, 제품화 및 생산공정을 포함한 로드맵 설계를 병행하고 우수특허의 실질적 사업화를 위해 사업 설계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리된 자료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신 거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중 지식재산처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내용에 대한 자구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성호 지식재산처 차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한말씀만 드리면 지식재산처 예산안이 좀 모험적인 게 없었나 봐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액 의견이 거의 없으신데 지식재산처 승격한 만큼 앞으로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이나 추가적인 정책도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퇴장하시는 대로 산업통상부 관계자분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순서를 통상교섭본부부터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1차관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교섭본부 소관 사항이 연번이 연속된 게 아니라 중간에 한 두세 번으로 나뉘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파악하시는 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산업통상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자료 산업통상부 소관입니다.

먼저 페이지 1쪽, 일반회계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기반 구축입니다.

이에 대해서 내역사업인 온라인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은 백업시스템 구축 비용 3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정부 측 의견은 수용입니다. 화재 등 물리적 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저희는 이런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억 1000만 원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2번입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입니다.

내역사업인 대미투자지원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내용이 미비하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수용 곤란합니다.

지난 10월 20일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따라서 지금 조선 협력 금융 1500억 불은 보증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이고 따라서 무보를 통해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5700억 이 부분은 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런데 잠시만요. 수석전문위원님, 뒤에 증액 의견이 이게 같이 있는 거라서 같이 설명하고 토론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전문위원님 보고 다시 하시고 정부 의견도 이따 합쳐서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무역보험기금 출연 2페이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RG특례보증지원은 중소형 조선사 선박수주 활성화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는데 1000억 원 증액, 600억 원 증액 그다음에 59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국내기업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하기 위해서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죄송합니다, 이게……

○소위원장 장철민 감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곤란 사항은 아까 말씀해 주셨고 증액 의견에 대한……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증액 부분은 수용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RG특례보증은 1000억 원, 600억 원, 595억 원의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고요. 밑의 국내기업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200억 원은 또 별도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증액 의견이고……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용……

○소위원장 장철민 하나는 액수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 동의하시는지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액수는 600억, 200억 부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에는 600억, 밑에는 200억 증액 의견에 정부 측 동의 의견이 있었고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 무역보험기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었다고는 하지만 MOU도 체결이 안 됐고 팩트시트도 지금 나온다 하는데 안 돼 있고, 뭐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합의가 있는지, 이면합의 내용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5700억을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MOU 체결되고 팩트시트 다 나오고 국회 비준을 받든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내년에 추경해도 됩니다. 이것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5700억이라는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허성무 위원님.

○허성무 위원 이면합의가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 강승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 주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도 우리가 깊이 논의를 해야 되지만 정부에서 충분히 대비해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해주는 것이 맞다, 그것이 우리 기업들에게 또 안정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좀 반영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뒤에 증액 같은 경우에는 박상웅 위원님께서 오히려 더 크게 주장도 주셔서 당이 좀 같이 가는 의견이 아닌가, 증액을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주장도 드렸었고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좀 동의를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다른 위원님.

○구자근 위원 저도 우리 강승규 위원님하고 같은 입장입니다마는 지금 국가 간의 협상이니까 당연히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 과정 등에서 상대방이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를 언제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5700억인데 단순히 뒤에 이 이야기만 있는데. 지금 산자부장관도 그렇고 미국하고 대미 관세협상 관련해서 저희들하고, 국회하고 소통한 적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용산의 이야기만 ‘됐다’, ‘2~3일 안에 다 된다’, ‘일주일 안에 다 된다’, 대통령이 ‘산 넘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저희들 국회에서는 전혀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편성하기가 굉장히 곤란했지 싶어요, 어느 정도 얼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두리몽실하게 5700억을 해 놔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이 고비를 넘기려면 야당 위원들하고 소통해 주고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라고 제가 제기는 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이 부분을 구체적인 예산 산출내역이나 또 사업계획서 제출을 같이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야당에서 예를 들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오세희 위원님.

○오세희 위원 대미투자지원 예산은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예산이고요. 관세 피해 기업들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보기금이 지금 100조 이상의 책임잔액도 보유하고 있고 향후 대미투자 이런 기금들의 기금배수 악화 전망으로 그런 걸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정부 출연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이것을 무보가 계약 체결 한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니까 국책은행 대비 정부 재원 활용도 높고 그래서 정부출연 예산을 통해서 대미투자 국내기업 이런 적극 지원이 좀 중요 역할이 가능해서 이게 필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금융지원 수요 발생에 대비한 예산을 반영해 놓는 것이, 금액 이런 것들을 확정해 놓고 그래서 재정 당국과 구체적인 투자 방안도 좀 연구하고, 이게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구자근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언제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5700억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1조라도 줘야지. 왜 5700억인가를 이해를, 설명을 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5700억인지.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니까 5700억 감액 의견은 위원님들이 내신 것 아닌가요?

○강승규 위원 우리가 감액 낸 거지요.

○구자근 위원 감액 의견을 냈어요.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니까 5700억이 왜인가를 정부가 설명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구자근 위원 아니, 이해가 가야지 우리가 5700억일지 3000억일지 했으니까……

○강승규 위원 우리가 감액을 한 이유가 정부가 제출한 5700억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구자근 위원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5700억을 주냐고.

○소위원장 장철민 지금 저희가 보통의 경우에 통상협상이나 관세협상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관세를 어느 정도로 하고 예를 들면 어떤 조약 체결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서 저희 통상절차법상으로도 실제로 어떤 협상이 끝났을 때 영향평가도 하게 돼 있고 재정 대책도 하게 돼 있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대미협상의 특성 자체가 투자권을 협의위원회를 통해서 나중에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내라고 하시는 순간 사실은 우리는 어떤 대책도 만들지 못하는, 사실 이번 한미 협상의 특수성을 저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한, 이게 어차피 무역보험기금 출연이라고 하는 것이 출연한 다음에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고 유지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국내 보완 대책이든 어떤 산업 분야의 무역 기업들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어떤 투자권과 어떤 내용들이 지금 결정될지를 저희는 사실은 이후에 미국에서 제안을 하고 우리 협의위원장인, 산자부 장관이 협의위원장으로 돼 있는 협의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의견을 주고 그렇게 해서 결정돼야 우리 국내 대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부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이번 협상의 실제 내용과는 조금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승규 위원 위원장님의 설명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관세협상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바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대미 관세협상에서 저희가 국회가 국민들이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바를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말이, 협상이 두 차례 협상 타결이 있고 그 이후에 사이사이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에 있어서 다 관계자들마다 또 그때그때 상황마다 틀리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관세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 있는지를 정확히 저희가 신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00억 불 마스가, 2000억 불 현금투자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앞뒤에 관계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5700억을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어떤 아무런 것 없이, 미리 이게 대략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적어도 큰 틀의 얘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저 무조건 반영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3500억 불 및 대미 관세 전체에 대해서 전혀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어렵다 하더라도 국민이나 국회에 정확히 상황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마다 정부의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김중민 위원님.

○김중민 위원 일단 관세협상 관련해서 국회와 소통이 좀 부족하고 또 실제로 지금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돼 있어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관세협상 사안에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관세협상 관련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 집행을 하거나 직접적인 예산 소요가 일어났다, 그 예산이면 지금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어서 감액을 하든지 아니면 이걸 보류하든지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지금 무역보험기금 출연하는 거잖아요.

관세협상이 되든 대미 투자가 결정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든 둘 중에 다 결정될 가능성이 거의 100% 아닙니까, 지금? 지금 한미 간의 무역 상황이나 투자 상황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지 대미 무역 관련된, 투자 관련된 새로운 상황 변화가 내년에 100%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미리 예정하는 게 아니고 이 무역보험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수시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기금 조성을 하는 게 맞지 이것을 관세협상이 확정된 다음에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미 관세협상에 따르는 또는 대미 투자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100%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보강 내지는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관세협상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구자근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관세협상 내역을 제출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김중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하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수 교대가 돼서 늘 여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생기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여당일 때 예를 들어 원전 수출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을 때 무보나 수은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야당에서, 지금 여당에서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것을 되갚아 주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왜 5700억이냐고, 3500억도 아니고 1조도 아니고 왜 5700억이냐고 그 이야기를 지금 묻는 겁니다. 언제 어디에 이렇게 쓰이는 개괄적인 것을 생각하고 5700억을 했을 것 아니냐고.

우리가 관세협상, 대미협상 관련해서 자료를 내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괄적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협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필요할 것 같다. 이 기업이 이 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대충 우리가 이 정도는 파이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여기에 와서 지금 우리한테 동의를 구한다면 우리가 천재도 아니고 그전에 의원들한테 방에 가서, 적어도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예를 들어서 와서 협상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여기서 서로 이해가 가서 그래도 좀 5700억은 과하지 않냐, 부족하지 않냐 이야기를 나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체 삭감 의견은 냈지만 그래도 이걸 우리가 정회도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까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왜 5700억인지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미 관련해서 여기서 다룰 것도 아니고, 이해하십니까?

○소위원장 장철민 본부장님, 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민 위원 판단 근거를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강승규 위원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지금 3500억 불 중에서 처음에 1500억 불 마스가, 2000억 불은 투자인데 처음에 정부가 보증·대출·펀드가 대부분 구성되고 실제 현금은 5% 내일 거라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산자부장관은 이에 대해서 액수는 얘기 안 했지만 퍼센티지는 얘기 안 했지만 대출·보증·펀드가 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1차 협상 결과 이후야.

그런데 미국에서는 계속 현금투자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그 지적을 했는데 계속 그렇게 답변하다가 지금에 와서 2차 협상에서는 2000억 불은 현금이고 1500억 불은 마스가다 그러면 지금 5700억이 뭘…… 수출보증을 어디에서 하겠다는 건지, 2000억 현금을 어디 보증에서 또 조달해서 현금을 갖다가 통장에 넣는다는 건지 그런 부분 등이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저희도 지금 뭘지를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불 중에서 1~2% 이외에는 국내법 때문에 대부분 보증이나 부채나 이런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질의를 하더라도 그저 ‘일본하고 협상이 똑같다’는 얘기만 하고 일본 협상 내용과 한국 협상 내용이 다른 것, 왜 다른지, 우리는 그래서 현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일본은 그걸 보증을 통해서 하는 건지 이런 데 설명을 요구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존경하는 박상웅 위원님께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5700억 그냥 뭉뚱그린 것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것은 마스가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증액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 야당이 지금 대미협상을 방해하려는 세력이에요? 그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 예산을 수립하려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구자근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관세협상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는 공개 못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5700억은 마련해 놔야 보증에서, 그게 마스가든지 어딘지에서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한치의 설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저 그때마다 자화자찬하다가 또 빠져나갔다가, 계속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 잠깐만요.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소통도 필요하고. 그런데 자꾸 문제의 초점이 관세협상과 관련되어서 연계된 대미투자를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정부투자잖아요. 정부투자와 관련된 예산이 아니에요, 이 예산은 지금.

이것은 우리가 액수는 특정이 안 났습니다마는 6000억 불 민간투자, 기업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관세가 올라가서 무역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든 민간기업 중에서 대미투자가 활성화되어서 투자가 일어나든 이런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필요한 대응 기금이거든요. 지금 정부가 2000억 불 하든 1500불 마스가를 하든 이 문제하고는 관

계가 없어요, 사실 이 관련된 것은.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대미무역 내지는 투자 상황이 어떻게 전망되니 이 전망에서 이런 정도의 액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근거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점을 문서가 됐든 아니면 따로 설명을 드리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장철민 설명을 들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종민 위원 이것 가지고 관세협상 내역이 어떠니 구체성이 어떠니 이렇게 논쟁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구자근 위원 잠시만요.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구자근 위원 내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이 투자패키지 협상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투자계획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입장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제 와서 그것 찾지 말고.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지금 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한번 보고, 이렇게 논란이 있으면 중간에서 그것을……

○소위원장 장철민 수석님이 보실 때 통상본부장님한테 설명 요구를 하셨으니까 말씀 좀 하십시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은 지적사항 검허하게 받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5700억 원은 무보의 보증에 초점을 둔 것이고 이것은 1500억 불 조선 마스가 거기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처음에 저희가 3500억 불 협의하고 나서—7월 말이지요—이번에 APEC에서 최종 합의 발표를 할 때까지는 협상 내용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저희가 최대한 우리의 외환시장의 안정성 그리고 우리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 내용을 바꾸느라고 저희가 시간이 걸리면서 경주에서 합의에 이른 것이고요. 그래서 1500억 불은 거기에는 민간기업들이 해외 직접 투자로 민간 자발적으로 하는 투자액수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출입은행에서 론, 대출하는 것 그리고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하는 것 이게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투자가 정확하게 민간에서 얼마가 일어나고 그것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보증을 정확하게 얼마를 해야 된다는 사전 숫자가 나오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하나 저희가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일본은 이미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일본 기업들한테 유리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국 정부 상무부에 적극적으로 하면서 일본 기업에 맞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5700억 원은 저희가 관계부처랑 협의를 하면서 무보는 이 보증이 운용배수가 12.5배수 운용한다는 가정하에 이 정도가 일단은 최소한도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마련을 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미국과 후속 협의가 진행이 되면서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자근 위원 말을 자꾸 빙빙 돌리는데 일본하고 대응해서 그렇게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하면 야당 패스하면서 그렇게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진행하면 되는 겁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아닙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마스가 1500억 불에 대한 5700억 불입니까, 이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전체?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1500억 불의 조선 쪽의 보증을 위한……

○구자근 위원 지금 김종민 위원이 이야기한 다른 무보, 다른 기업들, 다른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되지 않는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조선에 대한 5700억 원이 그것 관련입니까?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다른 데는 투자하지 않고?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다른 기업도 다른 일반 무보 기업 충분히 소화가 다 되는 거예요? 방산이나 원전이나 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2000억 불과 1500억 불이 있는데 2000억 불은 현금투자가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원전이든 반도체든 AI든 쿼터 컴퓨팅 이런 전략적인 분야에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500억 불은 조선 마스가에 한정된 겁니다.

○구자근 위원 수석전문위원, 그것 알았어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몰랐습니다.

○구자근 위원 아니, 지금 와서 현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깜깜이 예산심사소위예요? 예산소위에 뭘 심의를 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5700억 불을 그냥 아무 데나 줘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위원님, 지난 11월 11일 화요일 날 저희가 보고드릴 때 그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핵심을 비껴 나간 것 같아서, 이게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얼마나 할 것인가잖아요. 그런데 무역보험이라는 게 원래도 그다음 해에 무역보험기금 관련된 건전성이 어떤 식으로 악화되고 좋아질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짜고 받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운용배수와 어느 정도의 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냐의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한 출연금 예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구자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5700억은 특수하게 대미협상 관련해서 관세협상이 발생하니까 그 분으로 지금…… 그래서 다른 기업들과 상관없다 이야기한 거잖아.

○소위원장 장철민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이 지금 부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5700억이 대미투자과 관련된 내역으로 붙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무역보험기금에 출연을 해서 그것의 자본이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맞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미투자 관련된 계정이 분리되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아닙니다.

○구자근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목적예비비로 지정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맞잖아? 관세협상을 위한 거면 목적예비비로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지, 두리뭉술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오세희 위원 그게 작년에 우리 본예산이 800억이잖아요. 작년 예산이 본예산에 800억이고 그리고 추경에서 3800억이잖아요.

○구자근 위원 그래서 이번에 2000억 늘어났어요, 작년 추경 대비해서.

○오세희 위원 그게 그러면 4600억이거든요. 그러면 1000억 밖에 안 늘었어요.

○구자근 위원 아니, 2000억, 2200억 늘었다니까.

○오세희 위원 아니, 그렇지 않지요. 이게 4600억이니까요.

○구자근 위원 뭐가?

○오세희 위원 그러니까 800억에서 3800억.

○구자근 위원 아니, 전체 금액이 6000억 넘습니다. 6000억 넘는데 그중의 5700억이 대미협상 관련해서 증액시킨 거란 말입니다.

○오세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예산이 있는데 그걸 수요 대비해서 예산을 해놓은 건 관세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구자근 위원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5700억은 순수하게 대미협상, 방금도 이야기하시잖아.

○강승규 위원 이것은 대미투자 지원, 그리고 본부장이 했다는 것은 마스가 1500억에 대한 보증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여기 와서 밝히고 있고. 지금 수석전문위원까지 이 검토를 하는데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통과시켜요.

○구자근 위원 구체적 투자계획이 필요하고 그게 나온 다음에 목적예비비로 구성해서 그렇게 반영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소위원장 장철민 정리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일단 자료를 상세하게 전달해 주고 이게 결국은 마스가 관련된 민간기업들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특정되어서 얼마가 된다는 게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니깐 여기에 대한 예비기금으로 조성 근거를 전달해 주면 돼요. 협상이 결정이 어떻게 났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강승규 위원 마스가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 관계자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협상 파트너는 어떻게 지금 내용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1500억 불을 정부투자가 있는 건지 기업들이 하는데 보증을 해 주는 건지, 어디에서 부채를 갚다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지금 저것도 본부장님 오늘 얘기에서 마스가 1500의 보증용이다. 우리가 협상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아까 3500억이 지금 깜깜인데 그중에서 1500억을 가지고 한정되어서 보증으로 무보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지원해요.

○소위원장 장철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방금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목적예비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도 사실

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협상에 대한 내용들이.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5700억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로 전환을 하고 나머지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아까 정부가 동의한 대로 600억, 200억 정도 증액 의견을 담고 그리고 구체적인 협상 관련된 사항들은 통상교섭본부장님이 소위 이후에 추가적으로 자세한 보고들을 드리는 것으로 정리하면 어떨겠습니까?

○정동만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목적예비비……

○강승규 위원 아니, 목적예비비로 결정되는 것을 지금 여기서 그렇게 갑자기 5700억을 어떻게 확정을 해요?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구자근 위원 구체적 협상 결과가 나와서 대미투자 계획을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소위원장 장철민 아니, 목적예비비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아니라고 하시면……

○강승규 위원 아니, 이것은 구자근 위원이 하나의 예를 든 것이지.

○정동만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데 구체적인 금액도 안 나오고, 아까 설명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예비비 성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을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소위원장 장철민 이 정도 정리하고 보류해서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논의의 초점이, 논리가 사실은 계속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계셔 가지고. 일단 제가 그냥 딱 이 예산안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무보기금의 내년도 대외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건전성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것인가가 제가 보기에는 핵심인데 어떻게 보면 이 논의가 약간 다 산발되어 있어 가지고……

○박상웅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우선 회의 진행하고 이 부분은 보류해서 오후에 결정합시다. 그리고 그사이에 정부 측에서는 5700억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좀 갖고 오세요. 말로 하면 우리도 혼란이 되고 근거가 남을 수 없으니까 자꾸 우리가 알아서 편의상 해석을 해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소위원장 장철민 그것은 점심시간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허성무 위원님 말씀하시고 보류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보류하더라도 나중에 논의하지 않고 여기서 합의된 내용은……

○박상웅 위원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합시다.

○허성무 위원 아니, 잠시만요. 다른 사람 의견도 들으셔야지.

○박상웅 위원 나 처음 이야기했어.

○허성무 위원 지금 국내 중소조선 RG 수요 고려해서 증액하는 것 위원님도 1000억 내셨잖아요, 나도 600억 냈고. 정부가 600억 하면 5배까지 하니까 3000억 정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600억으로 이것은 거의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밑의 200억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오후에 더 의논하지 않고 여기서 정리하고……

○박상웅 위원 아니, 5700억이 마스가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니까, 우리도 처음 알았고. 그러니까 저도 1000억 증액 이야기했는데……

○허성무 위원 아니, 그것하고 이것은 좀 다르잖아요.

○강승규 위원 같이 해요.

○박상웅 위원 같이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오후에 가더라도 말 바꾸지 않을 테니까. 그래야 서로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권향엽 위원 말 그대로 목적예비비잖아요.

○박상웅 위원 뭐 어쨌든, 5700억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권향엽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합의된 것은 합의된 것대로 하고 넘어가지요. 어차피 오후에 본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허성무 위원 오후에 이것 논의할 시간이 있나.

○박상웅 위원 그것 하는 데 몇 분 걸리지도 않아요.

○구자근 위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소위원장 장철민 아니, 그런데 RG특례보증은 사실 내용이 조금 다른데 아까도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요.

○강승규 위원 아니, 이 항목 자체를 보류하고 더 충분한 저기가 있어야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허성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들어 있지만 그것하고 이것은 논의가 다르잖아요.

○강승규 위원 내용은 아까도 내가 다른 내용이라고……

○허성무 위원 합의된 내용 정리된 것은 정리를 하고 가야지 나중에 또 뭐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박상웅 위원 앞에 정리가 되면 뒤에도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니까……

○구자근 위원 5700억이 다 마스가 관련해서 그 보증이라는데 확정 이야기했잖아. 이 금액은……

○허성무 위원 아니에요. 증액 부분이 그게 아니잖아요.

○강승규 위원 아니, 허 위원님, 아까 본부장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자근 위원 다른 기업들한테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

○소위원장 장철민 일단 위낙 의견들이 복잡해져서 보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 이긴 하지만 RG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반대 의견이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셨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허성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RG특례보증 같은 것들은 정리하고 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이 대미투자 관련된 5700억 증액분과 RG특례보증 부분에 대해서 통상본부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오후에 끝나기 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지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러면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번 3번입니다.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지역대표 수출전시회 육성은 수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0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또 내역사업인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은 국내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기회 제공을 위해서 9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지역대표 수출전시회 육성 관련해서는 100억 원 신규 반영 부분 수용하겠습니다. 국내 전시회 개최 지원 부분은 92억 원 증액 필요 부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건에 대해서 다 증액으로 정리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저희 부산 것인데 부산 벡스코에 전시회가 있고 우리 부산에 전시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액이……

○소위원장 장철민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다음 보고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연번 4번입니다.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해외전시회(단체)는 국내 중소기업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다변화 지원을 위해서 25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또 내역사업인 해외전시회(개별)는 같은 취지로 15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해외전시회(단체) 부분은 254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합니다. 해외전시회(개별) 157억 원 증액 필요 부분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5번입니다. 수출지원 기반 활용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통합지원사업 중에 K-수출스타 500은 401억 7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내역사업인 통합지원사업 중에 긴급지원바우처는 미국 통상조치에 따른 관세 애로 피해기업에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308억 1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30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개별지원사업은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지원 기업 수 확대를 위해서 3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별도로 구자근 위원님이 정부는 2025년 본예산 및 추경에 따른 관세 대응 바우처 선정 기업이 집행잔액 비율로 인해 2026년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우처 사용기한, 조건 등을 유연하게 설정하고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통합지원사업 중 K-수출스타 500 관련한 401억 7200만 원 증액 필요 부분 수용합니다. 그리고 긴급지원바우처 308억 1900만 원 필요 부분도 수용합니다. 개별지원사업 35억 원 증액 부분도 수용합니다. 그리고 구자근 위원님의 부대의견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제가 이 부대의견 냈는데 지난번에 추경까지 해서 한 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차 공고를 언제 마무리했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8월에 했습니다.

○구자근 위원 아닙니다. 2차 공고가 8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정된 기업들 실행하는 것들은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남았는데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이 30%, 그러니까 바우처 금액의 30% 이상을 소진 못 하면 다음에 기회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나요? 알고 있어요?

○산업통상부무역진흥과장 정승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우처 사용 기간을 우선 1월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또 혹시라도 내년 바우처 모집공고에 응하고자 하는 기업은 당해연도 미사용액을 사전 반납하고……

○구자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룰대로 따르면 지금 관세협상도 아직 불확실성이 심하고 기업들이 아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9월 달에…… 예를 들어 2차 공고에 선정된 기업들이 3개월 안에 30% 이상을 써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수용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알고 수용하시는 것인가 싶어서 지금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30% 이상 못 쓰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2차 공고 이후에 대미 관세협상도 지지부진하고, 확실하지 않고 그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정한 룰에 따르면 내년에 다시 참여를 못 하게 될 것인데.

○산업통상부무역진흥과장 정승혜 무역진흥과장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구자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을 좀 여유를, 폭을 좀 넓혀서 현장에서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좀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부대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더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3건에 대한 증액 의견과 부대의견은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연번 6번입니다. 해외진출기반 구축입니다.

내역사업인 해외진출기업지원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거나 해외 투자 실태조

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4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내역사업 중소중견기업해외M&A지원은 M&A형 대미투자 확대를 위해서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해외진출기업지원 4억 6000만 원 증액 필요 부분 수용합니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해외M&A지원 4000만 원 증액 필요 부분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건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연번 7번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입니다.

먼저 내역사업 사업비 중 교포무역인네트워드는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신중 무역사기 대응을 위해서 1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중에 수입상품전 및 해외구매상담회는 수출촉진 지원 등을 위해서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교포무역인네트워크 20억 원 증액 부분 수용합니다. 그리고 무역사기 탐지 등 관련 18억 원 증액 필요 부분도 수용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7억 원 증액 부분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 항목 증액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연번 8번입니다. 양자산업 협력입니다.

내역사업인 산업통상 협력 네트워크 구축 중에 한미 간 신경계통상구축 사업은 비자제도 개선 등 우리 기업 현지 투자 지원을 위해서 21억 2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한·EU 통상현안 대응기반 구축 사업은 EU 통상현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산업통상 협력 네트워크 구축 중 한미 간 신경계통상구축 관련한 21억 2400만 원 증액 필요 부분 수용합니다. 또한 한·EU 통상현안 대응기반 구축 관련한 10억 원 증액 필요 부분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건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9번입니다. 산업통상 협력 개발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캄보디아 식품가공 TASK 센터조성은 한국인 납치사건 협조·공조 미비를 고려해서 7억 6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정부 입장은 수용 곤란입니다. 현재 동 프로젝트가 장비 등이 이미 구축이 된 상태라서 미활용 방치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수용이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 제가 의견 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지금 본 사업이 23년부터 총 5년간 추진되는 사업이었고 올해가 지금 3년 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앞 단계에서는 시설·장비 구축이 지금 완료된 상태고 2025년까지 총사업비 중에 86%가 이미 집행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감액을 할 경우에는 이미 구축된 장비를 그냥 미활용 내지는 방치하게 되는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제가 잘 들었고요.

그러나 지금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납치·사망 사건은 정말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서 국민적 분노가 일어날 때까지 정부도 방치하고 외교채널에서도 그저 방치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3년 동안 식품가공 TASK 센터 사업을 연속사업으로 해 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완전히 내팽개쳐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개도국 지원 ODA 사업을 이렇게 예산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캄보디아가 우리를, 그동안 원조를 해 주면서도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을 망치고 있는데 그냥 방치했다가 뒤늦게서야 이러냐 이거지요.

이것을 지금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고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됐다고 그러지만 지금 거기의 범죄 소굴에서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렇게 계속 우호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 중지했다가 말이야 캄보디아의 여러 가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말 지속적으로 협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ODA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그렇게 전략적인 사업 아니예요? 개도국에 지원을 할 때 우리가 이게 뭐……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안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계속 하지 말자는 것 아니잖아요. 캄보디아하고 우리 국교 단절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지키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캄보디아에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특히 최근에 불미스러운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시에도 우리 대통령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제기를 하셨고 또 양국 간의 경찰 협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캄보디아에서도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그런 안보나 이런 경찰 부분에서 우리가 철저

하게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이 사업은 사실 또 외교부에 캄보디아하고 관련된 ODA의 전체적인 맥락하에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때 또한 이 부분은 또 우리 기업들 진출에도 어떤 기반 역할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하는 게 저희 정부 입장입니다.

○강승규 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기업 진출 좋고요, ODA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국제기구 어떤 사업에 좀 관여를 할 때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 이런 ODA 사업 같은 것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냥 저희가 예산이 얼마 있으니까 막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업이든지 국민의 생명이든지 외교 어떤 관계십이든지 이런 쪽에서 분명하게 우리도 전략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준다고 그래서 절대…… 외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길게 안 할 테니까 올해는 양해를 하지만 제가 이 캄보디아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동안 산업부라든지 외교부에서 ODA를 어떻게 해 왔는지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됐는데도 그저 그렇게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지를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강승규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고 했으니까 원안 유지로 정리하되, 향후 캄보디아 치안 상황이 악화되거나 한다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이 ODA 사업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특별한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연번 10번입니다.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입니다.

내역사업인 통상정책 관련 협의체 운영은 국외여비 등 8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통상정책 관련 협의체 운영 8억 5000만 원 증액 필요 부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1번 IPEF청정경제촉진펀드 조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공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중이고 일본 및 호주의 공여계획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강제성 없는 공여계획이므로 2025년 수준으로 23억 1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21억 원으로 감액 필요하다는 부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가 감액 수용했으므로 의견 없으시면 감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은 통상교섭본부 관련해서 12쪽, 연번 18번입니다. 산업기술국제협력입니다.

내역사업 글로벌기업산업기술연계는 기존 과제의 지속적인 운영과 완결성 제고를 위해서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15억 원 증액 필요 부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억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료 맨 뒷장 69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총한도는 2025년도 한도인 280조 원에서 30조 원 증액한 310조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또 2025년도 본한도는 285조 원으로 하고 이 중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 수출거래는 40조 원으로 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비한도는 25조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질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성무 위원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26년도 내년도입니다.

○박상웅 위원 25로 돼 있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동의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마치고요.

그러면 통상교섭본부장님께서도 아까 무역보험기금 출연안 관련해서는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각 의원실에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RG특례보증 포함해서요. 이 보류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 통상본부 관련된 예산심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도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잠시만요, 교섭본부장님.

○소위원장 장철민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구자근 위원 예.

○소위원장 장철민 잠시만.

○구자근 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방금 속보 나왔는데 오늘 문안 확정해서 오늘 최종 발표할 듯하다는데 그것 혹시……

단독으로 지금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문안 확정 이르면 오늘 발표할 듯’ 이래 왔는데, 오보랍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통상본부장님 나가 보셔도 되겠습니다.

○박상웅 위원 지금 5700억에 대해서 페이지로 한 페이지라도 좋으니까 일단 우리 의원실에 자료를 빨리 주세요, 빨리 회의를 마치게.

○소위원장 장철민 그렇게 하시고요.

정회 없이 점심시간 정회 전까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바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페이지 6쪽입니다.

연번 12번 산업기술 정보화 및 정책 지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도체과학기술문화 복합센터 설립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3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억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3번입니다. 제조분야 친환경관리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군산지역 중소형 전기차용 소재·부품 산업 지원센터의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 30억 26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쪽입니다.

연번 14번 IoT 가전빅데이터 활용지원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 AI가전 대비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서 14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5번입니다. 해외인재 유치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첨단분야우수인재유치는 인재유치 현장사업 및 멘토링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11억 9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연번 16번입니다. 연번 16번이 좀 양이 많은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산업혁신기반 구축(R&D)입니다.

먼저 그래핀 2차원 나노소재 AI 기반 소재·부품 실증 기반 구축에 기반 조성을 위한 3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첨단 식품로봇·기기소재 인증평가센터 구축을 위해서 장비도입비 등 3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AI가전 글로벌인증 신속 지원을 위한 가상검증 인프라 구축에 디지털 트윈 기반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27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완전정밀분해 적용 친환경 미래차 부품산업 지원기반 구축을 위해서 25억 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출주도형 강관 신뢰성 평가 고도화 기반 구축 사업에 25억 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AI기반 전기차 고집적 배터리 진단 및 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에 2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초정밀 나노기술 적용 전자유리 부품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에 25억 원, 퍼지컬AI기반휴머노이드제조혁신센터 구축에 22억 원, 고순도 희귀·산업가스 인증·평가 체계 구축에 20억 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이크로그리드 연계 차세대 ESS 산업화 거점 인프라 구축에 20억 원, AX기반 산업·세대 이음형 니트염색자율제조센터 구축에 2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 있었고, 지능형 정보 기반의 비스포크 제조 퍼지컬 AI 플랫폼 구축 사업에 20억 원 반영 필요하고, 글로벌 항염증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에 20억 원, 목적기반 모빌리티 첨단새시구동모듈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 사업에 19억 6000만 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료 반도체 실증플랫폼 구축 사업에 18억 원, 반도체 K-소재·부품 생산 거점 구축에 17억 원, 민군겸용 미래형비행체 안전성 평가 AI플랫폼 구축 사업에 15억 원, 포천 K-AI 민군겸용 드론 상호운용성 평가센터 구축에 15억 원, 초안전 주행플랫폼 실용화를 위한 디지털트윈 활용 가상환경시험 기반 구축에 13억 80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용량 ESS 복합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에 10억 원, AI 기반 차세대 전력망 활용 전력기자재 개발 지원 구축에 10억 원 또는 5억 원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에 수소 계량 신뢰성 기반 구축에 3차년도 장비 구축을 위한 8억 74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시험평가센터 기반 구축에 6억 3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이테크 롤 침단화 지원 기반 구축 사업에 1억 12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가 의견 주시는데요 동의하지 않거나 아니면 금액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필요한 사안들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24개 과제 443.5억 원 전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한 가지, 차세대 전력망 지원을 위한 전력기자재 고도화 및 K-그리드 전략의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권향엽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이 10억 원, 정진욱 위원님이 5억 원 요청하셨는데 10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페이지 11쪽의 두 번째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AI 기반 차세대 전력망 활용 전력기자재 개발 지원 구축 사업은 10억 원으로, 나머지는 이 자료 안대로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김종민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장철민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이렇게 지금 R&D 관련한 예산의 증액 항목이 많아졌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증액으로 처리하는 데 이견이 없는데, 증액이 이렇게 많이 제출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각각 나누면 보통 한 20억~30억 원 정도씩 증액이 된 부분 이어서 사업의 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들이 스프레드……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짤 때 이런 현장의 의견이라든가 의원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R&D 관련돼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할 때 반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꼭 국회 단계에서 증액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게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 문제 제기를 해 두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2쪽입니다.

연번 17번입니다. 중견기업 핵심 연구인력 성장 지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청년 석박사 또는 기술전문경력인 채용 연계 지원을 위해 5억 40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9번입니다. 중소조선 스마트생산 혁신 지원입니다.

부산의 신규 내역사업인 중소조선 스마트 IT 서비스 지원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서 8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20번입니다.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지원입니다.

중소형조선사 및 협력사의 스마트 안전 기술지원 확대에 소요되는 5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3쪽입니다.

연번 21번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연대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바이오특화단지 내 소재뱅크를 구축하기 위해 23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사용후배터리의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사업에 19억 90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동물대체실험 실증지원센터 구축에 17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세 가지 사업 모두에 대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연번 22번입니다.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구축입니다.

신뢰성검증센터의 적시 구축을 위해서 11억 94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23번입니다.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입니다.

인프라 구축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3억 75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24번입니다. 생산기반의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23억 70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연번 25번 한미 조선해양산업기술 협력센터입니다.

양국 간의 구체적인 협의와 양해각서 체결 등 사전절차가 미비하므로 전액인 66억 4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조만간 MOU에 대해서,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가 포함된 MOU가 조만간 사인이 될 것 같고 현재도 실무진 간에는 미국의 상무부하고도 이러한 조선과 관련된 것에서는 실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센터 구축 및 인력 양성, 비자 등을 충실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을 원안대로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이게 충분히 내용은 공감합니다마는 방금 설명했다시피 미국하고 실무적인 협상까지 다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 우리는 그 내용조차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66억이 나오기까지…… 지금 어디에다 짓겠다는 말입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구자근 위원 실무협상은 진행 중이라며.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아니요, 무슨 프로젝트를 이야기할 건지 프레임은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구자근 위원 그런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 66억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뜬구름 잡는 식으로 대충 실무인원 몇 명 거기에 R&D 인력 몇 명 그리고 어디에 임차를 할 건지, 지을 건지, 대충 해서 일단 임차하는 걸로 하자, 진행을 시켜 보자 이래서 대충 그냥 두루뭉술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실무협상 관련해서 양단간 그런 절차들, 구체적인 협의와 양해각서까지 체결하고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그냥 하는 거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 예산안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들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라마는 양국 간의 안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확정되지 않은 것 같으면 더욱더 야당 위원들하고 아니면 전체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요. 이것 여당 위원들한테만 보고했어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아닙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우리 국회의 아무한테도, 어느 위원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상상 속에 있는 걸로 해서 두루뭉술하게 그냥 이 금액 책정했어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들은 예산안에는 넣어 왔습시다마는……

○구자근 위원 그러면 양해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추후에 추경이 생기면 소요가 더 필요하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는 데 이 인력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R&D 인력이나 나머지 우리 인력들이 가서 교육하고 다 해야 될 건데 비자 문제 같이 해결했어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협의기구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막연하잖아요. 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이라는 게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나타나지 않았던 사례여서……

○구자근 위원 뭘, 다 잘한 협상인데 협의서 필요 없을 정도로 잘한 협상인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예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안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대충했잖아. 대충했는데,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제 논의 과정에서 확정되면서 플러스마이너스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 사업들이 내년에만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니까요. 또 확정되면서 내년 예산 작업을 하면서 또……

○구자근 위원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안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불확실성 또 아니면 이런 예측 가능한 것들을 포함해서, 그렇지 않으면 누구라도 국장이나 실장이나 담당 누구라도 소통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모른 척하고 그냥 오케이해 주는 거예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제가 확정은 안 됐습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드립니다마는 아무래도 조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 쪽에서 안을 짜는 것을 미국 쪽에서 대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저희 주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구자근 위원 아니, 이 정부에서 다 그렇잖아요. 돌아서면 다른 말을, 미국하고 다른데. 그렇지 않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확정되면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변형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자근 위원 밑의 실무직원들한테도 확실하게 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삭감 의견을 내고 나니까 방에 다 와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유념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삭감 의견을 내지 않고 그냥 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여야를 떠나서 이런 불확실성이 있을수록 더 소통하고 설명을 더 해 줘야 안 됩니까? 앞으로 이게

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구자근 위원님 말씀이 사실 틀린 것은 없어요. 저희도 다 야당 해 봤지만 정말로 구체적으로 의원실들에 설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요. 일단 원안 유지이기는 하지만 이게 핵추진 잠수함 등 여러 가지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후에 사업 추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안 유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보고해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연번 26번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고도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관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26억 47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보고해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27번입니다. 수소엔진 및 기자재 육상 실증 플랫폼 구축입니다.

장비구축비 등에 22억 원 증액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28번입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공동구 구축을 위해서 1352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일반산단 통합변전소 구축에 54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지금 2건에 대해서 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2건 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항목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29번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입니다.

해당 예산을 국가전략산업 육성 및 보호로 이관할 필요가 있어서 15억 7000만 원 감액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비 보전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서 감액이 아닌 원안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현재 크레인 등 특수장비들 쪽에 대한 수입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미 마스가 프로젝트에서도 미국 내의 조선 골리앗 크레인을 포함한 그런 것들을 저희 쪽에서 그쪽에 건설하는 방안도 실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특장산업 부분 쪽의 우리나라 생태계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 정부는 판단을 합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소위원장 장철민 잠시만요, 강승규 위원님.

항목 이관이면 그런데 다른 증액 건이랑 연계돼 있는 건 아니가요?

○강승규 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소위원장 장철민 아니에요? 여기에 오늘 감액 의견만 있으신 거네요.

○강승규 위원 제가 질문 좀 할게요.

크레인·천공기라는 게 어떤 장비인데 이게 국산화 개발하는 데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해요? 크레인이 엄청난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레인 만드는데 수입이 90%라는 것은 우리가 크레인이나 천공기를 만드는 데 가격경쟁력이 안 되는 거지요. 앞으로 크레인·천공기 만들 때 국산화한다면 중국산 대당 1억이고 우리 게 1억 2000이면 2000만 원을 계속 보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인지 나는 도대체, 이 항목을 보면서…… 이건 무슨 마가 낀 항목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설명을 해 보세요. 크레인·천공기의 수입 비중이 90%에 이르는데 장비를 국산화 개발하는 데 15억 7000만 원이 지원돼야 된대. 이게 어디에 지원돼요? 이게 엄청난 기술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양해해 주시면 담당이 상세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설명해 보세요.

○산업통상부제조AI확산TF부팀장 권순목 안녕하십니까? AI TF의 부팀장 맡고 있는 권순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입 비중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크레인이나 천공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작은 산업이지만 그래도 90%가 넘어가는 것은 저희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산업이든지 우리가 제조업 특히 그다음에 기계장비 산업 이런 것들이 국내에 어느 정도 비중이 있어야 건설업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제조 공장 같은 것 짓는 데 어떤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저희가 안전하게 저희 산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키자라는 취지에서 이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무슨 신산업이라든지 무슨 부품, 소재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 이것은 크레인이나 천공기를 무슨 지원을 해서 이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 어디 기업에다가 지원하려는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산업통상부제조AI확산TF부팀장 권순목**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다가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다 지원할 거예요? 15억 7000만 원을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사업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15억 7000만을 어떤 사업에다가 지원할 거냐고요.

○**산업통상부제조AI확산TF부팀장 권순목** 여기저기, 사업설명서에……

○**강승규 위원** 여기저기, 어디에 사업 설명이라는 데……

○**산업통상부제조AI확산TF부팀장 권순목** 설계에도 지원을 하고요.

○**강승규 위원** 크레인·천공기 설계를 지금 국내에서 할 수가 없어요? 크레인 설계가 고도의 기술이에요?

○**산업통상부제조AI확산TF부팀장 권순목**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설계할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강승규 위원** 그런 게 아닌데 그것에 어떻게 재정 지원을 해요?

이것은 동의할 수 없어요.

○**소위원장 장철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강승규 위원** 저한테 사업계획을 충분히 가지고 와서 제가 납득하지 않는 한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구자근 위원** 점심 때 설명하세요.

○**소위원장 장철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해 보이니까요 오찬시간을 활용해서 강승규 위원님께 설명을 좀 주시도록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연번 30번입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고 사업 추진 속도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559억 2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 부분은 사업의 필요성 측면에서 원안 유지를 정부 차원에서 건의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가 11월 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연내에는 신속 집행이 가능하고 그래서 정부안 원안 유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상웅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박상웅 위원님이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성무 위원 철회해 주십시오.

○박상웅 위원 철회해 달라고?

○소위원장 장철민 어차피 11월 말까지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국회 통과 될 시점에서는 적정성 검토의 하자 부분은 치유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정절차 미비는 예결위에서 또 얘기가 되니까……

○박상웅 위원 특별히 경남의 허성무 위원이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니까 제가 받아들여 서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알겠습니다.

원안 유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31번입니다. 민군 기술 협력입니다.

다목적 탠덤형 중형급 무인 회전익기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에 12억 97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32번 철강·금속 디지털전환 실증센터 구축입니다.

인프라 구축 비용에 28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만 한 가지 수정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24년부터 해서 28년에 종료되는 사업이다 보니 5년짜리로 사업을 하면 또다시 예결위에서 별도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을 26년에서 28년으로 한 3년짜리 사업으로 수정해 주시면 이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기획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지금 이미 지났는데 가능해요? 이 사업이 지금 24년에서 28년으로 돼 있는 것을 26년에서 28년으로 단축시키면 무리가 없어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 부분을 좀 압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달라져야 되나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산 반영 전체 금액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미 앞에서 해 봤던 저희들의 암묵지가 있으니까 3년짜리 사업으로 해도 괜찮다라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권향엽 위원 가능하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허성무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니까 24~28년이 아니라 26~30년 사업인데 26~28년으로.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권향엽 위원 좀 더 앞당겨서 실증사업을 하자고 하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업은 24~28년짜리인 건데, 제안해 주신 것은 26년에서 30년인데 제가 수정 제안하는 것은 26년에서 28년짜리 3년 사업으로 수정해 주십시오라고……

○소위원장 장철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5개년 다차년도 사업을 3개년으로 줄이는데, 다만 그러면 1년 차 사업비에 대한 예산 증액 필요성은 없는 건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1년 차는 28억 원으로 하고, 1년 차 사업 쪽에 한꺼번에 많은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2차·3차년도에서 사업이 증액되도록 그렇게 구조화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28억 증액으로 정리하되 3개년 사업으로 이후에 사업 추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33번입니다.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25년 신규 사업 집행이 지연되었고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와 당초 총사업비 간에 차이가 발생했으므로 35억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3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감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35억 7000만 원 감액 의견에?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허성무 위원 동의했는데 넘어가야지.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정부가 감액 동의를 했으므로 35억 7000만 원 감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34번입니다. 산업인공지능 전환 및 확산 기반 조성입니다.

내역사업인 산업AI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은 AX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20억 원 증액 또는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모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이게 두 가지 사안은 아니지 않나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둘 중의 하나……

○소위원장 장철민 증액 의견의 액수가 두 가지고 내역사업은 하나라서.

그러면 20억 증액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20억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20억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억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연번 35번입니다.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단기 성과 중심 기업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서 1575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26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것도 앞의 부분과 비슷한 프레임입니다만 적정성 검토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연말까지는 적정성 검토가 끝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AI에 대한 거대 프로젝트도 필요하지만 실제 지금 빨리 상용화하고 중소·중견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필요로 하는, 1~2년 내에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수요조사가 돼 있는 것들을 빨리 할 수 있게 예산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고 그에 따라서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되기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총액이 얼마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천오백칠십……

○구자근 위원 말고, 전체 계획상 한 1조 정도 되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10개 부처 다 합하면 한 9300억 정도 됩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33번도 마찬가지로 이거 예타 면제받았으니까 적정성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데 단언해서 올해 12월 안에 적정성 심사 마무리된다는…… 보통 적정성 검토 어느 정도 걸리나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KDI가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하기는 합지만 심하면 일사분기, 빨리되는 경우 연말까지 통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구자근 위원 보통 한 1년 걸립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한 1년 걸리고 빨라도 6개월에서 1년 사이 되겠지요.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12월 달에 통과되고 나서 적정성 검토 바로 어떻게 하더라도 12월 안에 허술하게 그냥 사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나요? 예? 12월 안에 적정성 검토가 끝난다는 말이, 예견한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이 적정성 검토 부분은 제도적으로 예전부터도 예타 면제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런 스케줄이 계속되어 왔던, 반복돼 왔던 사안이기는 합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그 자료 다 갖고 오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구자근 위원 지난 정부, 이때까지 있으면서 예타 면제된 사업들, 지금 이 위엿것하고 앞엿것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때 적정성 검토가 한 달 두 달 안에 다 끝난 적 있어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한두 달 안에 끝나기는 어렵습니다만 말씀처럼 빨리되는 경우에는 연말……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빨라도 12월 2일 날 통과가 될 건데 그러면 12월 2일 날 통과될지 안 될지, 물론 지난번처럼 다수당이 밀어붙이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20일 만에 이 적정성 검토가 된다고요? 중장기 재정 수요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건데 재원 조달도 그렇고 그게 언제 바뀌어서, 지금 정부에서는 그냥 20일 만에 적정성 검토를 바로 통과시킨다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타 면제는 국무회의 통과한 시점부터 적정성 검토는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특히 먼저 진행되고 있어서 연말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늦어지는 경우에는 KDI가 이것을 우선 검토하니까 일사분기까지 되는 게 보통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구자근 위원 아까 총액이 지금 한 1조 정도 된다고 이야기했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앞의 미래 판기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에서 총액이 한 1조, 9000억 정도 되는데 적정성 검토 거쳐서 3000억 정도로 줄어든 거예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감안하면 이렇게 전액을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다수 여당, 인원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다 모아서 원 포인트 추경할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내년 3월이든 4월이든 마음만 먹으면 하면 되는데.

이것도 일단 저는 보류 요청합니다.

○강승규 위원 저도 의견 낼게요.

항목이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이에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AI응용제품을 1~2년 안에 신속하게 상용화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다, 그래서 거기에 예타도 면제해 가지고 한 1500억을 쓰겠다. 그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AI 대전환의 획기적인 기술개발, AI산업을 여러 가지 응용 분야에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AI에 150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예타 면제해서 지금 구자근 위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각종 절차를 최대한 기간에 그렇게 해서 그런 예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금 더 물어볼 건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테무에서 나오는 AI 거울처럼 그냥 AI 기술을 개발해서 약간 응용화시켜 가지고 마케팅 상품 만드는 것 그런 데에 돈을 막 1500억씩 쓰겠다는 거예요.

○구자근 위원 총액 1조라니까.

○강승규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증액하는 것.

9700억 쓴다면서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하겠어요? AI 대전환으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것 다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 없다, 다 인정해요. 그러나 예산을 쓰려면, 재정을 쓰려면 AI 대전환 계획을 세우고 뭔가 거기에 구체적인 프로젝트라든가 이게 어떤 부분에서 기술개발인지 원천기술인지 아니면 뭔지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엇그제 국무회의 통과됐다고 꼭 해 가지고 9700억 내놓고 1500억 쓰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AI가 그렇게 만만한 거예요? 어떤 아이템을 지금, 키트는 그냥, 미다스의 손입니까?

저는 이것 동의할 수 없어요. 이렇게 예산편성해 가지고…… AI 대전환 적극 지원합니다. 저희가 필요한 예산 증액해서라도 드릴게요. 우리 하나도 증액 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주력사업을 저희가 훼손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게 무슨 사업인지 뭘 써야 되겠다는 건지가 분명해져야 저희가 동의하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LLM을 개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조 AI 팩토리, 그다음에 퍼지컬 AI 개발하는 것처럼 기간이 걸리면서도 크게 해야 되는 사업들이 AI 관련해서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게 주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면서도 이게 AI와 같이 결합되어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수요들이 시장에서 꽤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기획을 해서 사업화한 게 지금 이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공장 순찰 로봇이나 수술 로봇, 또 전기차 충전기를 좀 더 성능화하게 하는 방법 등은 이미 있는 프로젝트들이지만 거기에 AI와 같이 협업을 했을 때 좀 더 확실하게 성능이라든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시장 수요들을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하고 그것을 프로젝트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다시 하나 더 첨언하겠습니다. 빨리 가면 체해요. 그리고 1500억 정도를 응용제품 신속화 사업에 해서 어디에서 선정해 가지고 아까 구자근 위원 지적한 것처럼 그것 그렇게 한다 그래서 성공할 것 같아요?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것 보류하시고 충분히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해가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AI 사업 지원 안 할 이유가 없단니까요, 저희도.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권향엽 위원 이것은 지금 사실은 이미 구자근 위원님이나 강승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는 아마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AI 기술들 중에서도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수요 불확실성 등에 따라서 상용화에 그동안 좀 소극적이었던 그런 부분들은 상용화를 진행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사업들도 여기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권향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AI 전문기업 간에 협업이 부족하고 또 수요 불확실성으로 AX가 저조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장철민 정동만 위원님.

○정동만 위원 강승규 위원님하고 구자근 위원님, 저도 동의합니다. 했던 이야기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전체 사업비 80%가 보니까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러면 기업의 리스크가 너무 남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차관님, 아무 제품이나 AI 붙여 놓고 예산 타 가는 기업 나오지 않는다는 법이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 부분은 선정 과정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정동만 위원 제가 볼 때는 AI 넣어 가지고 눈먼 예산 퍼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밖에 안 들립니다. 너무 무책임한 예산인 것 같고. 꼭 해야 한다면 이 예산 규모를 삭감해서 시범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TRL 기준으로 5단계 이상이 거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5단계 이상에 대한 기술개발을 해 놓은 것들이라든지 또는 아이템 중에 지금 당장 AI를 적용해서 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시장에 상당 부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들을 좀 더 빨리 정부가 같이 협업해서 제품화되고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저희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러면 민간부담비율을 좀 향상시키고 지원 기준을 구체화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오세희 위원 정동만 위원님께서…… 80%, 민간매칭 20%인데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 AI라든지 자율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는 70% 80%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것은 다 아시겠지만 AI라는 게 그냥 천천히 갈 수는 없잖아요, 상용화되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면 지원을 많이 해서 빨리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지. 물론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지만 지금 산업부에서는 준비되어서 현장에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맞춰서 그런 것들이 상용화되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큰 프로젝트니까 염려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것은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니까 그 점에서 하시고.

국비 민간매칭은 많이 해야 30%거든요. 보통 20%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미 정부에서 산업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국회에서도, 이것 뒤에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클린 택시, 스마트 무인운행자판기, 예시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현장에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성무 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제가 성과관리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정부가 성과관리를 해 달라,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하는 지적도 제가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AX 대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이미 있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전환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을 주장하시는 위원님들의 논리도 타당합니다마는 그것은 성과관리로서, 사후관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범국민적·범국가적 AX 전환에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동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또 드립니다.

여야가 공수가 바뀌게 되면 제가 지난 대에 예결위 간사를 하면서 늘 들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절차적 과정을 지켜라. 집행 가능성을 봐라. 집행잔액이 없도록 해라’ 늘 그렇게 하면서 감액을 계속, 전 건을 감액을 다 넣었습니다, 전 건을. 한 건 빠지도 않고 예결위 전체 의견에 다 넣었는데.

이 부분이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차관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올 12월까지 적정성 검토가 끝날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국무회의에서 예타가 통과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기재부로부터 예를 들어 적정성 검토가 시작된 시점을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적정성 검토가 이 정부에서 다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렇게 빨리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속도를 내서 갈 수 있는지 그래서 기재부로부터 이 예산이 성안되고 나서 쓰임이 바로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예비적인 것들을 받아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 분명히 수시배정 걸 겁니다. 수시배정 걸어서 못 쓰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적정성 검토가 끝날 때까지 못 쓰도록 수시배정을 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여기서 통과만 해서 가서 쓰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실익이 있을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느 부처를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실무적으로 기재부하교의 소통을 하셔서 저희들 이해를 구해 주세요.

○오세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산업부에서 설명을 안 해서 그러는데 이게 정말 실생활에 다 필요한 겁니다.

작업자 건강 AI 분석 그런 것도 하고 고령자 돌봄 휴머노이드 로봇, 정신건강 치료하는 헤드 밴드 이런……

○구자근 위원 그게 절차를 무시하고 필요하다고 다 할 것 같으면 우리 동네 것도 다 해 주지.

○오세희 위원 아니, 왜냐하면 국민의 편의가 있고 사회적 약자 배려들 이게 다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권향엽 위원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구자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이전 정부에서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전에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었냐, 그런 것도 없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차관님께서 조금 간과하고 계신 것 같은데 2020년도 사업에 보면 개사육 농장주 폐업 지원이라든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등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정성 검토 전에도 시행했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또 이 사업을 제대로 잘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들도 말씀을 드리시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산업부 전반에 걸쳐서 윤석열 정부하고 여기하고 해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김동아 위원 전 정부가 어떻게 사례가 어떻게 간에 이것은 사실은 처음 시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지적이 충분히 타당성 있고 이 예산이 다 정확하게 깔같이 안 쓰여질 확률도 사실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 가 본 길이기 때문에. 안 가 본 길을 가겠다고 산업부가 제시한 거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룰대로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당연한데.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을 놓친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AI 전환과 AX 그런 데 적합하게 따라갈 수 있느냐 이런 대승적인 관점에서 야당 위원님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이 예산이 정말 AI 딱지만 붙여 가지고, AI 제품도 아닌데 그렇게 사용될 여지도 사실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AI 대전환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입해서 치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약간의 부작용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충분하지만 그런 부분은 산업부가 집행 과정에서 제대로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시고 그런 부분 어떻게 챙겨 갈지 잘 설명해 주신 다음에 대승적으로 함께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강승규 위원 저도 김동아 위원님 말에 사족을 하나만 붙이면요.

좋습니다. 저희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AI 대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야당 위원 없다. 그리고 예산 재정수입 필요하지요. 또 안 가 본 길이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집중을 해야지, 아까 지금 이런 신속 응용 그래서, AI 다들 우려 같이 하시잖아요. AI 무늬만 달고 그냥 어디다 퍼 주는 것,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적어도 예타를 거쳐야 되는 건데 예타를 면제했다, 절차적으로 정부가 그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예산이 허튼 곳에 쓰는 것을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국회가 뭐 하러 있나요, 정부만 있으면 되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AI 대전환을 위해서 집중을 하는 데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요. 특히 산업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중소기업부도 아니고. AI 마케팅, 거기다 AI 제품이라고 이름만 붙인 것 가지고 1500억씩 쓰면 안 돼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9700억이나 된다면서요. 이것은 산업부가 다시 생각하세요. 빨리 간다고 절대 성공 못 합니다. 나중에 더 지탄만 받습니다.

○허성무 위원 AI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도도 다 높아져 있고 AI에 대해서 국민적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이미 개발되어 있는 여러 가지 AI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 보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낮은 수준이든 높은 수준이든 그것이

활용되고 보급될 때 국민들이 AI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그것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지면 서 대국가적인 전환도 아주 강하게 가는 것이고, 방금 강승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중 하고 정말 개발해야 될 새로운 과제들 그런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빠르게 가볍게 활용하고 확산시키고 국민들로부터 편의성 또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 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더 깊이 고려를 해 주시고 감액을 철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중간에 점심시간에 한 번 더 상세하게 보고를 받으시고요.

○오세희 위원 이 부분은 철회하시고 빨리 갈 수 있게 하지요.

○구자근 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향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진행된 부분들에 대해서 뼈아프게 지적을 받고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면교사 삼아야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다음에 누가 들어서더라도 그 진행을 막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그렇게 지적하고 예를 들어 적정성 검토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면서 시기적으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지금은 필요하니 지금은 따라가자?

○소위원장 장철민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차가 문제면……

지금 지역거점 AX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전체 삭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자근 위원 그렇게 따지면 전체를 우리가 다 들여다보고 일단 다 걸어야 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니까 지역거점 AX 사업은 대구에서 하잖아요. 그것 전체 삭감 할까요?

○구자근 위원 광주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지요.

○소위원장 장철민 광주 것, 대구 것 다 삭감할까요?

○구자근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다 올려야 되지.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니까 이게 사실……

○허성무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할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AI 전환이……

○구자근 위원 아니, 지금 이 정부에서 삭감하는 것은 우리가 손해 볼 것은 없잖아.

○소위원장 장철민 이 사업 자체가 실제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그 얘기를 드리고.

또 하나는 사실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작년에 저도 예산소위 같이 했지만 AX 분야 가 예산이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말로 행정절차 다 거치고 우리 국회 심사 다 거치고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 편성해 가지고 AI 지원하면 이미 시대가 다 지나 있어서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참 AI 분야가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 편성과 심사와 집행 과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조금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예타 면제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들 조금 포괄적으로 함께 고민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하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일단 이 사항은 보류하고 오찬시간을 이용해서 산자부에서 위원님들께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 정도 보류하고 오전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본회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일단 지금은 정회하고

요. 정회하였다가 본회의 산회 직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장철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35번 하다가 보류시켰고요.

36번부터 전문위원님이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17쪽입니다.

연번 36번 국가산업단지 관리위탁보조입니다.

먼저 열악한 사업장 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업단지안전관리강화 사업비 8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가산업단지의 불법매매 근절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 2건에 대해서 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2건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37번 섬유패션산업 활성화 기반마련입니다.

먼저 폐섬유 산업자원 순환 활용을 위해서 21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제로 웨이스트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 편성을 위해서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디지털 기반 신속 신발 제조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에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패션 크리에이터 협업플랫폼 구축 사업에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린&클린팩토리 전환지원을 위해서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5건 모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5건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38번입니다. 지식서비스 산업기술개발입니다.

먼저 서비스핵심기술개발과 관련해서 4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서비스산업융합고도화 관련해서 소버린 버티컬 AI 개발을 위해 4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2건 모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건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39번입니다. 농업기계 디지털전환향 개방형A-SW 오픈소스 및 협력개발 서비스플랫폼 구축입니다.

정밀농업 디지털산업전환 대응을 위해서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 예산에 40억 5000만원 또는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니까 금액은 어떻게 동의한다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40.5억 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억 5000만 원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번 40번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레더 개발 및 실증클러스터 구축입니다.

먼저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레더 개발 및 실증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해서 42억 98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버섯 재배지를 활용한 가죽소재 개발 및 실증시설 구축에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비건섬유 소재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에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3건 모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부산도 있고 부여도 있고 여러 건이 섞여 있는 거지요? 그래서 두 번째 것이 부여고 첫 번째 것이 부산권이고 그렇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3건 모두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41번입니다.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실증사업입니다.

국산 전투기 KF-21의 양산 적용을 위해서 성능평가비용 등에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쪽입니다.

42번 자동차산업기술개발입니다.

먼저 AI자율주행·SDV 상용화 관련해서 325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허브 구축사업에 5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K-모빌리티 핵심부품 기술개발 관련해서 운영 플랫폼 개발 등에 2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모듈러하우스 전용 PBV 및 서비스 플랫폼 착수 예산으로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4건 모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4건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43번입니다.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입니다.

먼저 신규 내역사업으로 AI완전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을 위해서 264억 17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44번 미래 모빌리티 확산 제도 기반 지원입니다.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한 저탄소 특화기술 공급 등을 위해 45억 9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45번 친환경차 전환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입니다.

경영안정자금 내역사업의 경우에 추정예산 집행률이 24.2%에 불과해서 46억 2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동 사업의 경영안정자금 대출 실행 예상액을 면밀하게 산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 실제 소요액만큼 예산이 의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우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실제 소요액만큼 예산이 의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정부는 동의합니다.

다만 첫 번째, 경영안정자금 내역사업의 경우에 46억 2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

견에 대해서 정부의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되기를 건의드립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지금 당초에 2500억 원의 대출 수요를 예상했으나 집행 부진으로 25년 내에 실대출액이 48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쪽을 480억 원의 대출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액만 26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마는 경영안정자금 쪽은 수요가 25년에 할 때 이미 몇 배로 신청이 됐고 그래서 경영안정자금 부분 쪽은 오히려 좀 더 필요로 하면 했지 좀 줄이는 것보다는 최소한 이 원안은 유지가 되되, 그러니까 경영안정자금 중에 투자 부분 쪽은 수요가 그렇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 그래서 경영안정자금의 감액보다는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상웅 위원님 혹시……

○박상웅 위원 친환경차 관련 기업에 미국 관세 부과 자동차부품 수출업계의 경영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경영안정자금 용도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편성했는데 25년도 추경을 통해 시행하려던 2500억 원 대출 규모의 약 24.2%만 시행이 되었답니다. 따라서 2026년도 신규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기존 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불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경영안정자금 용도 대출에 대한 예산 46억 2500만 원 이 부분을 지금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저의 의견은. 저도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저는 삭감 의견보다는 부대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하면 이게 그 당시에 추경입니다, 추경.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보통 우리가 본예산 말고 추경을 예산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시급하다, 급하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부처에서 우리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또 양해를 구하고 해서 없는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지만 야당의 입장에서는 여당에서 전체 추경 공여(窮餘)를 맞추다 보니까 어디에선가는 증액을 해서 전체 파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부처에서 교육지책으로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켜서 그 파이를 그렇게 맞춰서 지금 소요된, 부처에서 이 노력하지 않는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이 자금에 대한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발굴하고 홍보하고 다 했을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적은 것들은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됩니다. 충분히 그 당시에 그렇게 우리 상임위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하셨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말씀이고요. 17개 시도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던 것과 관련한 중복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쪽은 46억 2500만 원 전체의 감액보다 25년 추경 때 수요가 좀 부족했던 점을 감안해서 한 20억 원 정도를 감액하는 걸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동차부품 쪽 중소·중견기업들 시설투자나 경영안정자금 대출이자 이차보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그게 합리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지금 집행률을 보면 46억을 감액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걸 뭐 굳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오세희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작년에 그렇게 집행률이 낮았어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담당 과장이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자동차과장 박태현 동 사업을 저희가 만든 이후로 유사한 사업들을 지자체에서 이차보전 비율을 더 높여서 많이 만들어서 각 지방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바람에 저희 프로그램의 신청 수요가 줄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 경우 그렇다면 더욱더 그런 거지요. 예산을 써야 될 곳이 많은데 굳이 여기에다 이렇게……

○산업통상부자동차과장 박태현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2500억을 당초에 대출 수요로 예측을 했는데 올해 들어온 게 12월 말까지 예상하는 게 480억밖에 대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가 내년까지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신규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37억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동 사업이 내역사업인데 경영안정자금이 이렇고, 앞서 말씀드린 투자자금은 엄청나게 수요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투자자금 쪽으로 전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차보전 쪽은 수요가 낮은 게 맞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하고, 이차보전 여기서 37억 깎읍시다. 감액합시다.

○오세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자동차부품 이런 게 참 영세하고 이런 산업들이 커야 되거든요.

○강승규 위원 아니, 지금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37억.

○소위원장 장철민 어차피 대출이라고 하는 게 이미 지금까지 11월까지 하는 게 있고 지금 한 달밖에 시간이 더 안 남아서 수요 예측이 그렇게 지금 산자부에서 얘기하는 게 솔직히 더 틀리기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차관님, 37억 감액안 괜찮으신 거예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37억 감액으로 정부가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37억 감액으로 해서 정리하고 가시지요. 한 달 남았는데 수요 예측이 더 틀릴 가능성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37억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46번입니다. 미래차 첨단 ECU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전자제어부품 전자파 적합성 시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0억 27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47번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미래차의 고전압 전원체계 도입에 맞추어서 전장부품, 시험·평가, 인증 등을 추진하기 위해 9억 8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48번 미래차 전용 플랫폼 지원 XR 기반 디지털 트윈 시스템 구축입니다. EV 플랫폼 기반 연계 부품 성능평가를 위해서 29억 33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49번 특장차 수소 파워팩 기술지원 기반 구축입니다.

특장차용 수소 파워팩 핵심부품의 성능평가장비 구축에 3억 90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50번 xEV보호차체 얼라이언스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xEV보호차체 충돌시험 등 핵심부품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2억 77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페이지입니다.

51번 산악도로 기반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 구축입니다.

장비구축비 등으로 6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오세희 위원 이건 어디에 있는 산악도로예요? 지역이 어디에 있는 것? 자율주행.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사업수행기관이 강원도 횡성 쪽에 있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오세희 위원 그러니까 골고루 하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골고루 합시다.

○소위원장 장철민 이건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52번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입니다.

기술지원센터 설립과 장비구축 등에 6억 800만 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53번 e모빌리티 전동기 재제조산업 확산 및 실증지원 기반 구축입니다.

전동기 재제조 지원센터 구축에 2억 70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54번 자동차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중고차 부품수급 및 자원재활용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서 8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페이지입니다.

55번 글로벌 규제 대응 자동차 사이버 보안 인증평가 지원입니다.

테스트 플랫폼 도입 및 긴급 기업지원을 위해서 27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56번 모빌리티 인증부품산업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당초 계획된 장비를 도입하고 기업지원 확대를 위해 2억 91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57번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입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고성능 GPU 확보 후에 중복 투자 우려 등이 있으므로 1850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디바이스 AI반도체 부분 쪽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파운드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AI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면서도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사업 중에는 온디바이스 AI반도체 개발이라고 저희 산업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지적해 주신 적정성 검토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좀 정부안대로 반영되기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내용적 측면에서 그렇게 반대하거나 이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분명히 적정성 검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차관께서 지금 17페이지에 있었던 AI응용제품 신속화·상용화 이것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게 답변 주실 때 적어도 적정성 검토가 12월 안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진행됨과 동시에 진행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2월 안에까지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휴식시간에 저희 들한테 보고한 내용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다. 보통 필요한 사업들이 예타 면제를 받더라도, 물론 우리 위원들도 예타 면제되길 바라고, 지역사업이나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망하고 해도 그게 6개월 안에 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관심 사업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가 산업부가 아닌 기재부에서 핸들링을 해서 기재부에서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을 시키니까, 이것은 자기들 사업이니까 빨리 진행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달 안에는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짚은 건데, 12월 달 안에 된다고 하니까 제가 자료까지 다 달라고 그랬던 겁니다.

거기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통할 때 실질적으로 11월 안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1분기 안에는 될 수 있도록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아까 오전의 답변이고 이게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구자근 위원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보고하러 오실 때 그래도 10%는 감액을 받아 주겠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아까 앞에 17페이지 AX 부분에 대해서는 10% 정도의 감액

에 대해서 저희 정부가 동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실무자가 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의원실에 협의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앞에 말씀드렸던 신속 상용화 사업이고요. 이 부분 쪽 사업은 진짜 필요로 하는 사업이어서.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구자근 위원 그것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내가 보고받기로는, 지금은 거꾸로 보고를 하시는데 좀 정확하게 소통 좀 하고 하십시오. 답답하다, 진짜.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온디바이스를 10% 감액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거고 신속 상용화는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혼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1차 점검회의도 아직까지, 부처에서 보기로는 KDI에서 소통하는 걸로 봐서 11월 말 정도 되면 1차 회의 정도는 마칠 것 같다, 예정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2차 회의도 해야 되고 또 나머지 또 진행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절차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기재부에서 핸들링하는 것도 기간이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내용적 측면을 저희들이 반대하고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런 절차적 문제가……

왜? 지난 정부에 술하게 잘못되었다고 다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반면교사 삼자는 겁니다. 또 어느 정부가 또 바뀌었을 때 또 이런 이야기가 반복될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맞는 말씀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 절차들을 지켜 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래서 R&D 예타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법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 쪽은 R&D 쪽을 하면서도 예타를 하면서 이 적정성 검토가 다 끝나지 않고 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됐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그 부분이 교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R&D 예타 제도에 대한 개편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그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되는 하겠습니까만 그 과정에서 이번 예산 부분이 과거 체제의 연속선상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해 주시고……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리고 감액을 내니까 소통을 하는 그런 방식은 좀 지양해 주시고……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명심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게 와서 10% 정도 수용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도 지양을 해주시면서, 제 의견은 10% 수용을 받아들이면서 전액 감액했던 부분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구자근·박상웅 위원이 감액 의견 낸 것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이 예산도 그렇고 아까 응용 예산도 그렇고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AI 대전환의 AI 예산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특히 그것이 R&D든 응용이든 하는 것은 좋은데 또

지금 R&D 예산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이런 부분이 전혀 다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큰 맹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을 삭감할 때—현 정부나 새로운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R&D 예산을 나눠 먹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편성해서 꼭 필요한 데 R&D를 하자고 했던 것이 지금 형해화돼 버렸는데, 앞으로 그러면 R&D 예산은 그게 1000억이든 2000억이든 예타도 면제하자, 아까 적정성 평가도 뭐 하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예산입니까? 그냥 껌껌이 예산이지. 눈먼 돈이지. 지금도 R&D 예산에서 대학 간에 뭘가를 나눠 먹고 한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개편 시도를 한 거예요. 그것에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런데 지금 다시 그런 부분……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10%만 깎자, 제가 이것은 감액 의견을 안 냈기 때문에 그 수용 여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지만 ‘10%만 깎아서 하자’, 그냥 흥정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AI 전환 시대를, 정부가 늦게 출범하고 어찌고저찌고 충분한 예산 검토 시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1000억, 2000억 예산들이 이렇게 편성된 것을 그냥 그대로 수용해 달라? 저는 그것에 굉장히 불편한 심기입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말씀 주신 것을 유념하겠습니다. R&D 예타 제도 전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가면서 그 부분을 과기부 쪽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말씀해 주신 사항까지 감안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승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들은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어쨌든 정부가 10% 감액 수용 의견을 내서 이 부분은 10%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10% 감액하는 게 숫자가 너무 복잡한가요? 그렇지 않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10%로 하면 괜찮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10% 감액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쪽 58번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뿌리업종 확대와 AI기술 도입 촉진 필요성을 고려해서 7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년형 특화단지 3개 추가에 따른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두 가지 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2건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회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회소금속 공급망 위기 대응 시스템 개발을 위한 29억 61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60번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입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백업시스템 추가 구축을 위해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61번 바이오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입니다.

세 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AX 기반 항만 근로자 산업안전 및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 및 실증 관련해서 4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온디바이스 MEDI-AI 기반 의료기기 고도화 기반 구축에 30억 원, 피지컬 AI 기반 의료로봇 기술통합센터 구축에 30억 원, 체외진단의료기기 종합 성능평가센터 구축에 30억 원, 생분해성 고분자 바이오 화학 소재 및 공정 기반 구축 30억 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AI 기반 디지털덴티스트리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에 30억 원,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제품 개발 등에 28억 원, 인공지능 융합 기반시설 구축과 제품화 지원에 23억 3000만 원, 트라우마 이해 기반 케어 인공지능 의료기기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에 20억 원, 의료기기 제조기업 AX 융합인재 교육센터 관련해서 20억 원, 피지컬 AI 기반 휴먼 증강·돌봄 로봇기술 실증·고도화 기반 구축에 20억 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AI 융합 에스테틱 의료기기 인프라 구축에 20억 원, 신규 내역사업으로 AI 제조공정 기반 인체 이식용 섬유융합 의료기기 제조 기반 구축에 18억 원, 해외바이어 정보제공용 AI 기반 플랫폼 구축에 15억 원, AI 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에 10억 원, 맞춤형 제조기반 근골격계 의료기기 실증센터 구축에 5억 원, 시각 기능 보조기기 산업 분야에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3억 8000만 원 그리고 내역사업으로 지능형 헬스케어 제품 기반 실증·사업화 지원을 위해서 3억 50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말씀해 주신 열여덟 가지 사안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정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열여덟 가지 사안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29쪽 62번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입니다.

먼저 AI 기반 로봇 활용 실증사업에 10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신규 내역사업으로 퍼지컬 AI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에 30억 원, AI 로봇 비즈니스 환경 구축 관련해서 10억 원, 로봇직업혁신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성장성 강화 편성을 위해 9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말씀해 주신 네 가지 사안 모두에 대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네 가지 사안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디자인산업 진흥입니다.

먼저 디자인수요기반 확충 중 안전서비스디자인 지원을 위해 35억 66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디자인 리빙랩 구축을 위해서 32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 충북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센터 구축에 24억 원, 디자인수요기반 확충 중 우수디자인상품 선정에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5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말씀해 주신 네 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입니다.

먼저 신규 내역사업으로 AI 가상설계 등 엔지니어링 기반 구축에 40억 원, 산업융합 및 창의진흥에 15억 원, 경북 경산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전동화 전환을 위해서 15억 원, 엔지니어링 글로벌 경쟁력 강화 편성을 위한 13억 원, 신규 내역사업으로 표준품셈 제·개정을 위해서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말씀해 주신 다섯 가지 제안에 대해 정부는 모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5건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65번 지식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이러닝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벤처·중소기업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1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식서비스 혁신기반 확충을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1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두 가지 사안 모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내용이 두 가지고, 한 가지인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각각 10억씩 해서 20억……

○소위원장 장철민 예. 그러니까 한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20억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66번 나노인프라 공정서비스 역량 고도화입니다.

첨단나노 소재부품 실증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35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67번 국제적합성 평가기반 구축입니다.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 유지를 위해서 시스템 구축 등에 9억 40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법정계량 선진화 기반 구축입니다.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국가표준 활성화입니다.

KS인증제품 시판품 조사 확대를 위해서 9억 80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및 신뢰성 제고입니다.

유망시험 서비스 개발과 항바이러스 국제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은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어서 18억 8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협업 절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 점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서 저희 정부 안대로 유지되기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 제가 감액 의견 냈는데 실무자 설명도 잘 듣고,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끝까지 지켜보고, 감액 의견은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감사합니다.

사후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명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71번 해외인증지원체계 기반 구축입니다.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2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72번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 조성입니다.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을 위해서 예산 5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73번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입니다.

중견기업 정책기반 구축 및 인식개선 지원 사업에 양질의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 합쳐서 6억 8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74번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입니다.

먼저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기준·단가·사업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실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에 380억 원 삭감 후 재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역직구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 후에 재편성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해외역직구 활성화 지원 사업은 개별 유통기업의 맞춤형 마케팅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동마케팅 예산 30억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내역사업인 사업운영비는 40억 원 전액 감액한 후 재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사업운영비는 적정 수준인 3%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9억 20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말씀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하고 명심해서 사업을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희 정부 쪽 입장에서는 오프라인 유통, 지금 시기적으로 해외역직구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통기업들이 역직구의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걸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지적해 주신, 앞에서 말씀해 주신 예타 면제 사업에서의 적정성 검토 부분이 완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부분이 적정성 검토가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저희 실무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먼저 올리 고요.

그리고 공동마케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대기업이나 또는 대한상의한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상의가 주관기관으로서 이 사업을 좀 핸들링을 하는 데이고 결국은 기업 공모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데들이 공동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으로 쓰여지게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원안을 좀 유지하기를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평비 부분 쪽이, 사업운영비 부분 쪽이 통상적으로 2~3%가 들어가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쪽이 해외역직구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운영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해외에서도 똑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2~3%가 통상적입니다만 국내에 2.5%, 해외에 2.5% 정도를 계상을 해서 5% 정도를 계상을 했다고 하는 점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짚어 볼게요.

그랜드페스타 공동마케팅, 대한상의가 주관해서 업체들에 대행을 시키겠다 이런 거잖 아요. 우리 상품들을 해외로 역직구를 하겠다 그런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지금 민간에 역직구를 할 수 있는 많은 유통상들이 있는데 특히 해외역직구 할 때 우리 한상들도 수도 없이 많잖아요. 한상들이 안 나간 데가 없지요. 그런데 제가 한상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K-브랜드, K-푸드 이런 것 등을 역직구한다고 해외 어떤 지금 이것처럼 대한상의든 어디든 업체에서 프로모션해 가지고 해외에 역직구하는 상인들을 좀 모아서 뿌린대 요. 그런데 그들이 실제 우리 상품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낮기 때문에 실제 그런 효과가 없다는 거야. 우리 한상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것을 500억씩이나 없던 예산을 코리아그랜드페스타 공동마케팅, 막 대한상의에서 또 업체를 해 가지고 한다, 이게 다 제가 볼 때는 아마추어들이 프로들 이 하는 영역에 예산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크게 동의하기가 어 려워요, 이것도.

○**오세희 위원** 지금 이게 내역사업 해외역직구 공동마케팅이 500억이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오세희 위원** 아니, 그런데 롯데·현대 백화점, 이마트 현지 인프라 활용하는데 이게 지 금 성과가 없었잖아요. 거기다 중소기업이 진출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성과가 없었고. 쿠

팡·무신사, 무신사가 요즘 얼마나 큰 왕좌인지 아십니까? 아니, 이런 걸 무조건 대한상의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말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지원할 데가 있고 또 지원해서 효과를 보고 그걸 검증해서 다음에 또 해야지. 아니, 지원할 데를 이런 데를 지원하고 효과도 여태 없는 것, 여기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국민 세금을 들여 가지고 대기업을 지원해서 거기에 중소·중견기업을 공간에 앉힌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직접 지원을 하든지 모아 가지고 전시 박람회에서 하든지,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쿠팡·무신사를, 우리 걱정해야 될 판국에 여기를 걱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고요. 롯데백화점 다 이거 진짜…… 올리브영, 얼마나 이게 강자입니까, 요즘? 나 이거 진짜 잘못됐다고 봐요, 유통기업 8개사.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할 데 지원해야지. 우리가 받아야 될 데다가 지원을 하면, 효과도 하나도 없는데. 갔다 온 사람이 효과가 이것 하나도 없대요. 하여튼 이것은 좀 재고를 해야 됩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말씀해 주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데들이 대기업으로 구분되는 쿠팡이나 올리브영들이어서 그렇기는 한데 그쪽을 지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플랫폼을 역직구하는 데 활용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수혜와 혜택은 중소·중견기업이 볼 수 있게 저희들이 프레임을 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플랫폼을 역직구에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그 부분 쪽을 제가 꼭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드리고……

○오세희 위원 이게 지금 동남아 중심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동남아 중심. 그렇지요? 동남아 중심으로 하고 과거에도 백화점, 대형마트 이용해서 거기다가 입점해 가지고 했는데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후기도 좀 점검하고 해 가지고…… 아니, 1000억 5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마케팅을 해서 한다는 게 모호한 거거든요. 자칫 갔다가 그냥 일회성으로 그칠 수도 있고 성과가 없는 걸 왜 이렇게 하나 이거지요.

그리고 쿠팡이나 무신사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브랜드 가치만 올려 주는 거지 내용에 간 사람들은 그걸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좀 더 촘촘히 연구해서 진짜 이런 걸 해외에 나갈 때는 손실이 없게, 나간 분들도 어느 정도 그런 가치를 느꼈을 때 이걸 하는 거지 이렇게 묶어 가지고는 이게 안 되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부분 쪽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를 반영하고 또 위원님과 좀 협의를 드려서……

○오세희 위원 이게 지금 3년간 하는 건데 1500이잖아요, 그러면.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이게 1500억인데 그래서 이것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제 의견입니다.

○구자근 위원 저도 말씀을……

○소위원장 장철민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저는 내용적 측면에서는 이런 오세희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고 또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대기업들의 플랫폼이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들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 부분은 서로 간에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중국의 유통기업들 때문에 전 세계가 씨를 말리는 형국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테무나 알리나 알리바바나 이 정도까지는 저도 알겠는데 텐센트, 쇼피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대만까지 진출이 되어서 어려운 환경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쿠팡도 일본에서 23년도에 철수를 했고, 예를 들어서 이마트도 베트남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중국의 다각적인 공격적인 어떤 그런 영향들 때문에 교육지책으로 우리 정부에서 지금 아까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들이지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잘 좀 반영해 주시고.

저는 지금 운영경비, 그러니까 신규 사업에다가 이 부분이 우리가 보통 운영경비를 하게 되면 한 3% 정도 수준이 되는데 이거 뭐보다 젓밥에 더 관심이 있다고—사업 적정성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이게 후반기부터 진행이 될 건데 운영경비부터 보통의 평균보다 더 올려서 5%를 그냥 일단 살림부터 우리 식구들부터 좀 챙겨 볼까라는 진정성을 제가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부처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충분하게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하고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보고하겠다고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정산제도 부분들을 운영을 투명하게 잘 좀 집행해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비 제가 지적한 부분들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감사합니다, 위원님.

○**구자근 위원** 앞의 내용적 부분은 충분하게 오세희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은 저는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 부분을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강승규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K-브랜드 인기를 기회로 역직구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런 대원칙만 있지 지금 보면 우리의 플랫폼도 열악하고 해외 플랫폼 등을 활용한다고 할 때 오세희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배만 불러 주는 건 아닌지. 또 우리 국내 딜리버리하는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의 업체 그리고 국내에서 이것을 딜리버리할 때 중소·중견기업들의 역할 이런 부분 등에 대한 면밀한 계획 등이 짜여 있나요, 이게?

이게 대한상의의 유통물류진흥원이 홍보하던 기관인데 이것을 플랫폼 삼아서 이런 역직구 사업을 이들에게 대행하게 하고 플랫폼은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다 이런 정도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죽 읽어 보니까 역직구 수출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냥 전제만 있고 거기다가 500억을 그냥 이렇게 나눠 놓은 거지, 이것 가지고 어떻게 뭘 하겠다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계속 두 번 읽어 봤어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담당 국장이 좀 더 상세히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산업통상부중견기업정책관 최연우 위원님, 중견기업정책관입니다.

역직구 활성화 지원은 전체 500억 예산 중에 50억이 내내역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역직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기재부의 경제성 검토는 9월 24일 날 받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만 사업을 착실하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미 10월 13일 날 사업계획에 대한 연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 기업을 지금 거의 찾은 상태고요. 지금 역직구와 관련해서는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소라든지 혹은 번개장터라든지 이런 중소기업들이 해외 역직구를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그것의 판로를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승규 위원 이게 상품은 뭐예요?

○산업통상부중견기업정책관 최연우 다이소는 일반적인 상품을 지금 다 하게 되고요. 특정한 상품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이소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 일상용품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그것들을 외국인들이 사실 관심이 많은 최근의 추세에 맞춰서 해외에 역직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조금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딜리버리라는 그런 결제수단 같은 것들을 같이 우리가 접목을 시켜 줘서 해외 소비자들이 다이소라든지 번개장터 같은 그런 장터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승규 위원 상품들은 대개 다 공산품이예요?

○산업통상부중견기업정책관 최연우 예, 다이소는 대부분이 공산품들이고……

○강승규 위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다이소 하나예요?

○산업통상부중견기업정책관 최연우 저희가 몇 가지 업체들을 다 확인을 했고요. 지금 가장 유력하게 이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부분은 다이소하고 번개장터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5개 정도 사업체를 내년에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강승규 위원 농수축산물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어요?

○산업통상부중견기업정책관 최연우 그것은 검역의 문제도 있고 해서 역직구를 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들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사업운영비를 통해서 검역 문제를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K-푸드가 꼭 생식품만이 아니잖아요?

○산업통상부중견기업정책관 최연우 맞습니다. 가공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강승규 위원 쌀 가공식품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이것 대상이 안 돼요?

○산업통상부중견기업정책관 최연우 아니요. 대상이 다 가능합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뭔가 우리가 보이는 게 있어야, 지금 이걸 갖다가 유통물류원에서 해 가지고 하여튼 다이소나 이런 플랫폼을 활용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뭘 할 건지 그래서 우리의 K-푸드나 여러 가지 K-브랜드 상품들이 해외로 어떻게 직구로 수출할 수 있겠다 그런 비전을 보여 줘야 예산을 달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안 그래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강승규 위원 저는 이 사업계획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대한상의회 어떤 기관이길래 이런 역직구 마케팅을 한다는 건지…… 그렇지요? 대한상의회 어떤 데예요. 대한상의 산하에 유통물류원이 홍보센터 아니예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사업 주관기관처럼 대행해 주는 기관으로 하려고……

○**강승규 위원** 에이전트를 하려고 해도 이 사업을 알아야지요. 돈을 정부 예산이라 그래서 그냥 갖다주고 대행해서 업자 모집해 가지고 뿌려라, 뿌리겠어요? 뿌릴 수 있겠냐고.

아니, 상품이 뭔가 역직구를 하려고 하더라도 어떤 디스플레이를 해야 될 거고 어딘가 뒀을 해야 될 거고 홍보를 해야 될 건데 그걸 K-상품, K-웨이브 때문에 해외 다이소에 다 한국 상품을 넣으면 무조건 팔리나요? 안 그러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자금을 다루는 대행기관을 믿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정부에서도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대한상의 유통물류원 쪽이 그래도 코세페를 10년간 대행 주관기관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 부분 쪽을 같이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안을 담게 되었습니다.

○**강승규 위원** 우리 보좌진이나 우리 당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코세페나 이런 부분 등을 활용한다는 이게 약간 뭔가 점핑을 해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역직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장 장철민** 차관님,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승규 위원** 많은 위원들이 지금 감액 의견을 냈잖아요. 그렇지요? 다들 지금 우려하는 거잖아요. 구자근 위원은 운영비에 대해서 철회를 하셨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깎지요?

○**박상웅 위원** 그래요.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사업을 해 보면서 나중에 더 활성화하면 되지요.

○**오세희 위원** 30억만 주자고?

○**박상웅 위원** 50% 깎아요.

○**김동아 위원** 차관님, 해외유통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큰 유통기업 중의 하나인 홈플러스가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리고 제가 그쪽 유통업계 관계자들 만나 보면 이마트 역시도 중국에서 철수함에 따라서 사실은 해외 진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내에는 해외, 중국의 온라인 유통채널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 큰 새로운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 시장을 좀 개척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리고 또 온라인 유통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대충 돈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K-푸드나 K 한국에 대한, 문화에 대한 열망이 큰데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오히려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런 절실함이 묻어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대한상의에 지원한다고 하지만 대한상의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오프라인 위주로 오프라인 예산 관련해서만 대한상의에 같이 협업하는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대한상의를 통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런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김동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유통산업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고려해 주셔서, 지금 오세희 위원 말씀도 일견 타당하지만 사실은 그런 유통채널이 해외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유통기업들이 자사제품도 판매할 수 있지만 당연히 우리 중소·중견기업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게 되고 특히나 해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올리브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올리브영에 들어가 있는 한국산 제품 화장품들이 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온라인을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도 대승적으로 동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오세희 위원 저도 얘기해 볼게요.

예산이라는 게 그런 타임 스케줄이나 지원 방법이 확고하게 뒀을 때 마케팅도 하는 것이고 사업이 성공하는 건데, 지금 보면 산업부가 이런 내역만 잡고 있고 이런 틀만 잡았지 정확하지 않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려면 정말 밤새고 해서 모든 스케줄을 짜 가지고 가는 건데 이걸 대한상의회다 줘서 거기서 말아서 하니까 산업부는 그냥 거기다 주면 모든 것을 알아서 거기서 모집도 하고 운영하는 이런 방식인데……

저는 이것을 더 주고 안 주고 간에 지금 아주 프로젝트가 무르익지 않았으니까, 좀 더 확고해야지 이렇게 하나씩 랜덤으로 가서 이마트 하나 어디 하나 현대백화점, 롯데…… 이렇게 모호하게 가서 우리가 그 경쟁에서 이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할 때는 접근을 체계적으로 해서, 500억인데 하게 되면 3년 동안 1500억을 들이는 거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오세희 위원 1년 한 번 해 보고 이게 끝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냉정하고 더군다나 해외에 나가면 한 번 해 가지고 500억 버렸네 이러지 말고 온라인·오프라인을 확고하게 잡았을 때 계획안이 먼저 서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계획안이 불확실해 가지고 이것도 해서 이것 잡아 가지고 누구한테 대행했는데 그 사람이 뭘 그렇게 죽자 살자 하겠어요. 대한상의회가 단체인데 그렇게 죽자 살자 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장철민 이 정도로 하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강승규 위원 하나만 더, 오세희 위원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걸 내가 조금 더 보충할게요.

이게 계속 에이전트만 키울 거예요. 실제 팔아야 되는 우리 농산 가공품이나 공산품이 다이소에 들어가 있는데 다이소로 넣는, 모집하는 그 에이전트가 또 대한상의회는 그냥 제 1 에이전트이고 2차, 3차 에이전트들이 계속 만들어져서 예산 빼먹는 데 다 써요.

오세희 위원님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저도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장철민 일단 지금 다양한 의견들은 주셨는데 구체적인 감액 의견들은 사실 자료에 있는 것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또 박상웅 위원님께서 절반 감액하자 아까

이러셔서 사실은 약간 우려 표명들은 다 있으시니까……

어느 정도 감액이 가능합니까, 차관님?

○박상웅 위원 이것 해 봐야 내년도 집행도 다 제대로 못 하고……

○권향엽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가 올해 처음으로 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이렇게 해서 구축을 하겠다는 것이 지 않습니까? 초기 비용이고 사실상 팝업스토어라든가 SNS 마케팅이라든가 해서 대중 중소기업 동반 마케팅을 촉진시켜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는 사업 맞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런데 지금 오세희 위원님이나 강승규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마는 그것들을 다 계획을 세워 놓고 그 계획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타임이라든가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세계인들의 관심이 우리 제품들에 쏠려 있을 때 사실은 온라인상에서도 뒷받침하고 이것에 대한 번역이라든가 홍보에 지원을 하면 중소기업 제품이라든가 방금 농산물, 예를 들면 스낵 같은 것 있잖아요. 요즘 김부각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찾고 한다는데 그런 것에도 촉진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우려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차관님께서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권향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도 그 효과가 잘 전이될 수 있는 것을 자세히 설명 자료들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해서 유지를 해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장철민 예.

○김종민 위원 저는 역직구와 관련해서 이런 대책과 유통사업 해외진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00억이라고 잡아 댔는데 적정성 검토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예산을 갑자기 반을 감액해 버리거나 아니면 전체 감액 의견이에요, 지금 의견이. 그런데 이래 버리면 이 감액을 다시 내년 안에 뭘 해 볼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여기 내역이 좀 정확하지 않다거나 뭔가 설득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위원님들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국회에 보고해서 추가 의견들을 반영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고 그래서 적정성 검토 결과와 국회의 보고를 전제로 해서 수시배정으로 처리를 하든지 일단 예산은 통과를 시켜 놓고 이 내용 보강 작업을 요구하는 게 맞지, 이것을 갑자기……

절반 감액은 근거가 없잖아요. 아예 전체 감액이다 그러면 이 사업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가 다 흔들려 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예 감액시켜 버리면 내년 1년이 이 사업 전체가 밀려 버리니까 그건 조금 무리 아닌가 싶은데요.

○박상웅 위원 내년도 사업 착수가 사실은 예타 면제 확정 이후에 적정성 검토가 금년

9월에 착수되어서 연말 정도 되어야 종료가 될까 말까 하고 실제 사업 착수는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1500억을 맞추기 위해서 500, 500, 500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500이 집행도 안 되는 돈을 뻔히 알면서 취지는 좋으니까 정부안을 존중해 준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보고.

두 번째, 이 영세 중소기업의 개별 진출지원 기회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상의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해 가지고 자기 먹고살 기반이 있는 사람들의 해외진출을 주로 신경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소규모 중소기업이 제조업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한번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인 고려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26년도 초반까지 사업계획이 실제로 확정이 안 될 가능성도 현재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집행에 26년도, 내년도 1분기 이후로 집행 자체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일정상의 그런 요소를 고려해서, 취지가 좋으니까 무조건 500억을 통과시켜 주고, 국회가 취지 좋다고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전액 삭감을 요구하지만 현재 동료 위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려해서 50% 하자는데 그게 조금 희화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정부 쪽에서 아까 했던 사업의 삭감 사례와 같이 10%를 삭감을 하고 말씀해 주신 사안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좀 더 세밀히 계획을 하고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10% 삭감안을 제안을 드리는데 어떨까 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지금 사실 역직구에 대한 이야기들만 많이 나왔지만 제가 지금 내역사업을 살펴 보니까 500억 중에 역직구 관련된 것은 80억이에요. 대부분은 지금 유통업체들의 해외진출 관련된 480억, 오히려 훨씬 큰 내역사업 자체가 논의가 되지 않고 전액을 삭감하니 반액을 삭감하니가 사실 논리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토론이라서 제 생각에는 지금 80억 부분인 역직구 관련되어서는 토론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0% 정도 일부 조정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진행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워낙 위원님들이 많이 주셨으니까 그것 관련된 사업관리에 유념하도록 부대의견을 남기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두 자릿수 이상 역직구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도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다 비슷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내용, 특히나 역직구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주신 거라 그 역직구 관련된 것만 10% 감액 조정해서 넘어가시는 것은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위원** 유통기업 해외진출 관련해서 오세희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대기업들……

○**김종민 위원** 그런 것을 나중에 보고해서 내용을 반영시켜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이 500억 중에 역직구 관련된 부분 10% 조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희 위원님이 주신 의견이, 꼭 오세희 위원님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국민들의 걱정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사업관리에 유념해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명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러면 해외역직구 활성화 지원 예산이 80억이니까 10% 감액해서 8억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75번입니다. 산업통상자원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산업부 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에 8억 4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76번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석유, 가스, 무역투자 등 노후 정보시스템 교체를 위해서 12억 92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무래도 저녁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시 정도까지 진행하고 저녁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연번 77번부터 49쪽에 있는 133번까지는 모두 신규 사업으로 증액 사업들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일괄해서 쪽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먼저 77번 AI 기반 에코디자인 산업생태계 고도화입니다.

통합 플랫폼 및 실증센터 구축에 10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78번 차세대 디스플레이 영상가전 핵심 부품·소재 산업 AX 전환 기술개발입니다.

99억 4000만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79번입니다. AI 기반 수출대응형 유무인 복합체계 부품 기술개발에 9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요확대형 배터리 테스트베드 구축에 산업용 배터리 선도기술 등을 위해 6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81번 SER 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특화 자율제조 확산 사업에 6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82번 미래 수요 대응 이차전지 전주기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에 52억 원 반

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83번 미래 의료 임상실용화 지원단입니다.

포터블 엑스레이 개발사업을 위해서 5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84번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품질검사체계 구축 등에 5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85번 디자인 핵심요소 기술개발 사업에는 전국 5개 지역디자인진흥원 기반으로 한 R&D 사업 등을 위해서 5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86번 철강산업 AI 융합 실증 허브 구축 사업 관련해서는 4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87번 휴머노이드 로봇 하이브리드 피지컬 AI 실증과 관련해서는 4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88번 미래 모빌리티 AI 소프트웨어 검증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해서는 평가환경 구축에 4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89번 제조 AI 데이터 밸류체인 구축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구축비 등에 4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90번 한-아제르바이잔 글로벌 사업화 센터 구축과 관련해서는 35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다음에 91번 미래 모빌리티 아카데미 관련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35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92번 인간 중심 조명시장 선점을 위한 시범 및 실증사업 관련해서 33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93번 제조 피지컬 AI 실증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30억 원, 94번에 드론 CEMA 방호기술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30억 원, 그리고 95번에 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에 29억 원, 그다음에 96번의 AI 가전 글로벌 인증 신속 지원을 위한 가상검증 인프라 구축은 앞의 산업혁신 기반 구축 내역사업에서 이미 심사가 됐는데 좀 중복해서 자료 작성이 됐습니다. 앞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 97번입니다. 메디헬스케어제품 글로벌 인허가 규제 신속 대응 지원 사업에 25억 6000만 원, 그다음에 98번 화학산업 고부가가치 소재 전환 및 가스화기술 개발에 25억 원, 99번도 좀 전에 보고한 것과 동일하게 앞에서 이미 반영이 된 사업이 중복돼서 표현이 됐습니다.

다음, 100번입니다. AX 자율제조 사이버 융합 보안 기술개발 및 지원 사업에 25억 원, 101번 그린반도체 공정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에 25억 원, 102번 미래 모빌리티 인지부품 기능안전시험 지원 기반 구축에 24억 원, 103번 K-주얼리 산업기반 고도화 및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사업에 20억 원, 그다음에 104번 첨단제조기술 기반 모빌리티 제조 혁신 거점 조성 사업에 20억 원, 그다음 105번 시설농업로봇 실증 기반 구축 사업에 20억 원, 106번 AI 자율제조 실증지원센터 구축에 20억 원, 107번 해양환경 대응형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에 20억 원, 108번 극한 환경용 배터리시스템 안전성능 기반 구축에 20억 원, 109번 AI Green Design Lab 구축 사업에 20억 원, 110번 전기자동차용 CTP-CTB 기술 지원을 위한 핵심 부품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에 20억 원, 111번 에너지 저감형 친환경 양극재 제조공정 테스트베드 구축에 19억 6000만 원, 112번 의료 반도체 실증플랫폼 구축에 18억 원, 113번 양자컴퓨팅 기반 산업지원센터 구축에 17억 8000

만 원, 114번 AX 자율제조 사이버 융합 보안 실증지원 사업에 17억 원, 115번 반도체 K-소재·부품 생산 거점 구축에 17억 원, 116번 글로벌 부산 디자인페어 개최에 15억 원, 117번 자율주행 상용차 실환경 모사 기반 구축에 15억 원, 118번 미래차 탑재모듈 상용화 기반 구축에 15억 원 또는 6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19번 차세대 배터리 전극장비 핵심 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에 14억 4000만 원, 120번 지능형 센서 소재·부품·구성품의 Spin-On을 위한 군 적합성 검증 기술 지원 사업에 14억 원, 121번 상용차 전동화 부품 생태계 신속 전환을 위한 한국형 필드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사업에 13억 원, 122번 AI 로봇 기반 중소물류 자율플랫폼 구축 사업에 12억 원, 123번 우주방산 레이저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에 10억 원, 124번 친환경자동차 전력변환시스템 전력손실평가 기반 구축 사업에 10억 원, 125번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에 10억 원, 126번 AI 자율 모빌리티 원격제어 거점센터에 10억 원, 127번 AI 융합 미래차 전동화 시스템 검증 플랫폼 기반 구축에 10억 원, 128번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구축에 9억 원, 129번 혁신신약 연구개발 가속화 플랫폼 구축에 7억 원, 130번 미래차 편의안전 기술 고도화 기반 구축에 6억 7000만 원, 131번 글로벌 디자인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6억 원, 132번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성장 지원에 5억 원, 133번 뿌리산업 변화 대응을 위한 공정고도화 지원센터 사업에 5억 원 신규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제안해 주신 75번부터 133번 사업 중 92번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 정부는 동의합니다.

다만 92번 인간 중심 조명시장 선점을 위한 시범 및 실증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과제와 유사·중복성 측면에 문제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리고 118번에 아까 15억과 6억 둘 중의 하나를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15억 원 반영을 동의합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92번이야 지금 동일한, 그러니까 중복 우려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제외하고 동의하지요.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번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은 증액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50쪽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먼저 연번 1번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입니다.

예산편성 이후에 25년 10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 및 교육 수수료 인상 요인에 따라서 추가 수입 예상액 2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LPG 충전소 폭발사고에 대비해서 모바일안전관리시스템 도입으로 3억 50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금년 10월에 검사 수수료가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원가보상률에는 50%도 미달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에 법정검사 사업의 위축 우려가 있어 정부의 원안대로 반영될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감액 의견을 정동만 위원님이 주셨는데 안 계셔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으십니까?

○구자근 위원 그러면 잠깐 이것 보류했다가 통화 한번 하고 저녁 먹을 때 보류한 것 하고 같이 하는……

○소위원장 장철민 감액 의견 주신 정동만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했다가 이후에 위원님 의견 듣고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번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용자입니다.

영세 주유소의 노후화된 안전설비 개선에 용자 지원 소요로 29억 8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3번 석유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석유유통정보 고도화는 안전 관리를 위한 사업자 교육 등에 64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4번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보급 기반 구축입니다.

지속가능항공유 검증시설 및 검증장비 구축 등에 37억 73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5번 석탄비축자산 관리비입니다.

인천 비축탄 방출은 15억 200만 원 신규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6번 폐광대책비입니다.

근로자대책비는 이직근로자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133억 92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출수피해방지비는 인력 증원 및 유지관리비 등의 추가 소요로 14억 65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폐광도 석탄채 채움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2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3건에 대한 동의인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3건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7번 광해방지 사업입니다.

환경부 토양오염복구 요청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8번 탄가안정대책보조입니다.

석탄광업자가 석탄 생산을 감축할 경우 감축량에 따라 보조금 지급하기 위해서 11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9번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입니다.

설계 착수 지연으로 25년 예산에 반영된 1차년도 공사비가 이월될 것으로 보이므로 감액이 필요하므로 690억 71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감액 의견으로는 연내 집행 가능한 공사비 규모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중소기업 특화 B2B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ISP 용역비로 5억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우선 690억 71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1차년도 사업비가 이월돼서 그 사업비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 삭감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ISP 용역 5억 500만 원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의 삭감안도 동의하고 B2B 서비스 제공 용역비 증액 동의가 있었고 위원님들 따로 이견 없으시므로 감액과 증액안 반영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0번 일반광업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광업선진화는 디지털마이닝 지원, 국가기술자격 검정 등을 위해서 13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광산안전시설은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5억 60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 광량확보는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탐광시추를 위해서 3억 2100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우선 13억 2500만 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다음 사안……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3건에 대해서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1번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자원안보정보사업은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 ISP 수립 등을 위해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2번 광산물비축 자산관리보조입니다.

정부 비축확대 정책에 따라서 관리물량이 증가하고 광종도 확대되었으므로 6억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4억 6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금액 추계로는 4억 6700만 원이 필요해서 4억 6700만 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강승규 위원님, 추계 결과가 4억 6700만 원이라는데 위원님 의견이 좀 달랐어서……

○강승규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추계 결과에 따라서 4억 6700만 원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3번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먼저 국내 재자원화 시설의 절대적인 부족과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위해서 37억 7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3억 3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내역사업

인 재자원화 시설 지원은 2030년까지 재자원화율 20% 달성 등을 위해서 90억 2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재자원화 국내외 거버넌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통계 지표 조사·고도화, 시스템 구축 비용 등에 7억 2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시설 지원 90.2억과 거버넌스 7.2억 그다음에 통계 예산 4.5억 원 증액하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통계 예산이요? 지금 여기 세 사안인데 통계와 관련된 게 어느 사안이지요? 재자원화 국내외 거버넌스 운영은 동의하셨고 위에 90억도 동의하신 것으로 이해했고.

첫 번째 것 37억과 3억 3300만 원 중에 어떤 것으로 하실지에 대한 의견이 불분명하고 통계에 대한 것도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당초 정부안은 거버넌스 관련해서 재자원화 포럼을 운영하는 1.5억만 반영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해 가지고 통계 조사 시스템 구축비 4.5억 등을 포함해서 전체 7.2억 원으로 국내외 거버넌스 부분을 증액시켜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통계 조사 부분이 국내외 거버넌스 안에 내내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통계와 7.2억이 구분돼 있는 게 아니라 7.2억 내에 통계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첫 번째 것은 아까 차관님께서 37억인지 3억 3000인지……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다시 정리하면 시설 지원 90.2억하고 거버넌스 7.2억 증액에 동의한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맨 위엿것 37억 7700과 3억 3300 중에.

○소위원장 장철민 ‘국제 표준 대응 필요성 고려하여 증액 필요’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 37억 원 증액안도 있었고 3억 3000만 원 증액안도 있었고 그다음에 뒤에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게 시설장비 지원 관련해서 90.2억 원을 증액……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아니, 그 앞엿것 2개 중에 어떤 것을……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러니까 그게 같은 건인데요.

○소위원장 장철민 아, 이게 내용이 같은 겁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시설장비 지원액을 얼마로 할 거냐인데……

○강승규 위원 90억과 7억 2000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위의 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37억 원 안도 있고 3억 안도 있었고 그다음에 90.2억 원 안도 있는데, 정부안은 90.2억 원으로……

○소위원장 장철민 이게 다른 내역사업이라고 지금 자료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

○산업통상부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같은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첫 번째 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90억 내에 포함돼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내역사업 재자원화 시설 지원 관련해서 90.2억 그리고 거버넌스 운영 관련해서 7.2억 이 두 가지 안을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4번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입니다.

국내 기업 탐사 및 개발 프로젝트 융자 사업으로 증액이 필요한데 1000억 원 증액 또는 289억 8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1000억 원 증액과 289.8억 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강승규 위원 2개 다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소위원장 장철민 저희 자료상으로는 내용은 같고 금액만 2개로 되어 있어서 2개 다 동의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1000억 원과 289.8억 원 중에 289.8억 원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289억 8300만 원 증액안에 대해서 정부는 동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 1000억 원 증액에는 동의 안 하고요?

○김동아 위원 이것 합치면 1000억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에 기존 예산안 합치면 1000억이잖아요.

○강승규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9억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5번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기반 구축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냉열을 공급하는 기반구축 사업으로 50억 원 신규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런데 그다음도 쭉 같이 보고해 주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연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6번 AI기반 LPG 배관망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및 관리입니다. 전국통합 비상대응 시스템 등을 위해서 34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17번 해상풍력지원선 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개발입니다. 2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자원산업 인력양성입니다.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에

6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9번 LPG벌크로리 순회점검 및 교육에 2억 2000만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20번 한국가스공사 관련해서 부대의견으로 산업부는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의 향상과 국민 가스요금 인하 및 안정재원으로서 천연가스 재판매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추후 필요 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1번 원전산업 수출 정책 관련해서 정부는 원전 관련 정책과 예산이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간 이원화됨에 따라 중복·비효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전체 수용합니다.

다만 20번 한국가스공사 관련한 부대의견에 대해 신중검토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트레이딩 확대를 해서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위험이 수반되는 부분이어서 무리하게 확대되는 경우에 원료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국민 가스요금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딩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 의견을 개진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나머지 사안에서는 정부가 동의를 했고 20번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에 대한 신중검토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위원님들……

○박상웅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번 사안은 조금 논쟁적인 토론 사안이므로 이번 부대의견에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증액한 것들 증액으로 반영하고 21번 부대의견도 반영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안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57쪽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세출사업의 연번 1번입니다. 기계장비산업 기술개발입니다.

조선산업 특화 인공지능 자율제조 검증센터 구축 등에 32억 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신발산업 대중소협력을 위한 AI팩토리 제조기술 개발에 15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사안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2번 소재부품산업 기술개발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양산성능평가지원)은 신속한 정책지원을 위해서 183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극한·극지 산업용 화합물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에 25억 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SiC 고효율 전력반도체 기관분석 지원센터 구축에 25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 사안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3번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지원입니다.

회의수당 예산을 4500만 원 편성했으나 매년 집행액이 2000만 원 이하이므로 20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다만 2000만 원 감액 부분 쪽을 향후에 추진될 위원회나 전문위원회의 개최 수요를 저희들이 추산해 봤을 때 2000만 원 감액 대신 1000만 원 감액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 정부 의견 수용합니다.

○김동아 위원 이것 회의 빠지고 이래서 아마 안 줄 거예요.

○구자근 위원 그것은 아니고 작년에 회의 열두 번 했는데 올해는 열 번으로 잡아 놔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저희들이 위원회가 연 2회 전문위원회가 연 4회로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당연히 회의 수가 줄었으니까 그 금액 깎아도 되지, 그것을 생색내듯이 이야기하시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1000만 원 삭감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4번 AI 기반 중소·중견 지원 디스플레이 파운드리 구축사업입니다.

공공형 디스플레이 파운드리 구축 및 AI 기반 제조혁신을 위해서 50억 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60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지역지원계정입니다.

1번에 기타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세종산단 진입도로 구축사업은 원활한 가동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18억 7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산업단지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RE100 산단 구축지원에 사업비 26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면에 인프라 적기 구축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새만금 포함 2개소 조성을 위한 추가 사업비 등으로 311억 원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수 인프라 설계비용으로 6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위한 설계비용 등에 5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역사업인 탄소중립 선도모델 구축 관련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신규 산업단지 2개소의 1차년도 사업비로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산업단지 1개소 사업비로 50억 원 또 부산 명지녹산산업단지에 대한 사업비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또 내역사업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에 26년도 신규 지정 개소를 3개에서 6개소로 확대하기 위해서 6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노후 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은 산업단지 청년인재 유입 등을 위해서 4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인 B·B·C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8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기존 내역사업에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신규 내역사업 AX 기반 BBC 산업 스케일업 지원 등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고.

부대의견으로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청년근로자의 근속 유인 및 고용 유지 제고를 위해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서 산단근로자 청년성장바우처사업 등 재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말씀해 주신 사안 중에 두 가지 부분을 제외하고 정부는 동의합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RE100 산단 구축지원과 관련해서 구자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법안 상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 부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라는 RE100 산단이라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 쪽의 사업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다음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인 BBC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비 등 28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면서 사업 지역을 충북 청주 산업단지로 지정을 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전체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만 이 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으로 지정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정부 의견으로 제시

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제가 몇 가지는 더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첫 번째 사안 중에 하나는 새만금 포함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설계비용 50억하고 밑에 밑에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비용 50억이 내용적으로 약간 비슷해 보이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희들이 동의한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동의를 해도 이게 내용적으로 겹치는 것 아닌가요? 하나는 새만금 에너지저장장치 설계고 하나는 그냥 에너지저장장치 설계라서 아까 특정 지역에 대한 말씀으로 미루어 생각하면 이것도 새만금은 못 넣고 그냥 밑에 50억에 넣어 놔다가 나중에 공모 등이나 아니면 이후에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정확하게 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은 그것 좀 정리를 하시고.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액 부분에 대해서 정부 원안 유지할 것을 건의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에서 인프라 적기 구축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311억으로 에너지저장장치 부분 쪽을 반영해 주시되 지역을 새만금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된 것 같고.

혹시 그다음 사안 100억과 50억이 있는데 100억으로 증액 동의를 하신 건가요? 탄소 중립 선도모델 구축.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억 원 증액에 동의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지난번 그저께 전체회의할 때 제가 산업부장관한테 물었을 때 산업부장관께서 답변한 내용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계세요, 이 건으로 인해서?

지금 버젓이 새만금 RE100 관련해서 새만금이라고 표기를 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증액 의견도 있는데 ‘새만금 포함해서 2개소 조성을 위한’ 이렇게 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이것 다른 근거 있어요? 근거 있냐고. RE100 사업 산단 조성하는 근거가 있냐고.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 현재 법이……

○구자근 위원 없으시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강승규 위원 법도 없는데 무슨 예산을……

○구자근 위원 그러시면서 이것 그 당시에 전체회의할 때 장관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공모로 진행할 거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공모로.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구자근 위원 공모로 진행하신다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해남이나 무안이나 영암이나 울산이나 이 RE100 산단 우리가 충분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산단이다, 우리가 명분 있다, 우리도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해서 각 지자체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버젓이 차관님께서, 장관은 분명히 공모를 한다 그랬는데 차관님께서 이걸 새만금에 갖다 넣는다고 이야기하면……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아니요. 새만금 부분 쪽은 수용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래, 눈 감고 아웅이지 않습니까? 이것 새만금 안 갈 거예요? 그렇게 공모를 하게 되면 나머지 당연히 들러러 세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아니면 이것에 기대를 갖고 계시는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지양해야 된다, 안 된다. 그렇게 가더라도 그것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고.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백육십……

○구자근 위원 말고.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냐고.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 우선……

○구자근 위원 산단 조성하고 예를 들어서 ESS장치 하고 전체적으로 하면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 전체 예산은 지역이 어디로 되느냐에 따라서 또 추계가 별도로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디 지역이 된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공통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놓은 금액입니다.

○구자근 위원 아니, 몇 평 급으로 산단 조성하는데? 없지요? 총액도 없어, 지역도 없어. 그냥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심 사항으로 RE100 산단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랴부랴 그냥 총액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

○구자근 위원 제가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통상 예산 삭감할 때 이렇게 합니다.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있거나 예를 들어 가지고 일정이나 여러 가지 봐 가지고 여기서 논의를 해서 위원들끼리 이 정도 금액이 적정하겠다 하고 감액을 논의하거나 증액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얀 백지입니다, 지금. 하얀 백지에서 민주당 의원 몇 분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놓은 것 있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게 통과된다는 전제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이 산업집적법이나 그런 부분하고 같이 오버랩돼서……

○구자근 위원 무시하려고 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것대로 진행하고 제정법 무시하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다고. 그것 이야기하고 싶은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의원특별법으로 가지 않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싶으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당연히……

○**구자근 위원** 충분히 우리가 미래에 탄소중립 가야 되지요. RE100 산단 지향해야 됩니다. 가야 되지요. 그런데 저는 산업단지를 두고 있는, 공단을 1300만 평 두고 있는, 국가산단을 5공단까지 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국에 산단 몇 개입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1330개인 걸로……

○**구자근 위원** 국가산단 몇 개예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53개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34개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24개가 20년 지난 노후 산단 그러니까 거의 80% 이상, 80%가 노후 산단에 접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공무원분들도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계획도 없는 곳에 가서 산단을 새로 조성해서 그게 몇만 평이 될지도 모르는 데를 한다고 치고 그렇게 가는 게 맞는지. 여기에 탄소중립을 위한 선도모델 사업들 진행했던 것들이 지난 정부에 있었는데 딱 일언지하에 끊고 진행도 안 시키고 그것 끊고 이렇게 새로운 RE100 산단으로 간다고 하는 게 맞냐고.

그리고 정책실장께서 거기에 유치하는 기업들에 대해 수도 없이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20년 이상 된 대한민국의 노후 산단들은, 거기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런 대책들, 그런 예산들 세우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제가 조금만……

○**구자근 위원** 말씀하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우선 전체 산단이 있는 것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다른 RE100 산단을 별도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스마트산단이니 기회발전특구니 기업도시니 하는 부분들이 이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위에 RE100 자립 도시 특별법으로 해서 그 부분 쪽에 같이 할 수 있게 개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기존에 산단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만들겠다 그런 차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제가 올리고요. 그다음에……

○**구자근 위원** 저는 산업도 또 갈라치기한다고 봅니다. 탄소중립 산단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가야 될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업으로 지역을 또 갈라치기하고 또 지역 내에서 갈라치기하고, 예를 들어서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이 수치, 뒤에 따라와야 되는 금액들 이런 것들은 전혀 노출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도 부분도 우리가 앞에서 예타 면제 부분의 적정성 검토 부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안 하자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입법 발의해 왔습니다. 의원입법 발의해서 이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통과됐으면 여기에 계획을 좀 더 내실 있게 충실하게 하고 좀 더 채워서, 분명히 내년에 또 일찍 추경할 것 아닙니까? 이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빚을 내든지 국가채무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추경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시도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닙니까? 준비를 더 내실 있게 하고, 왜 굳이 아무것도 없는 하얀 종이에 그냥 261억을 넣나이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오세희 위원 저도 좀 얘기할게요.

○강승규 위원 저도 있어요.

○소위원장 장철민 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오세희 위원 그렇게 하얀 백지라는 게, 이게 새만금이 된 지가 언제입니까? 앞에 경산 지역, 강원도 지역, 지역 지금 다 있습니다, 내역사업에. 이것만 가지고…… 다 있잖아요. 구 위원님 다 그쪽 예산이지 어딴니까? 새만금이 된 지가 언제냐고요.

이게 새만금이 아니래도 좋아요. 이 사업은 새만금에 기반조성이 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완성이 안 돼. 그러면 지역에서도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 ‘새만금도 그걸 용역으로 해라, 여기만 지정이 아니라’ 그러는 것은 몰라도. 지금 형평성이 없어요. 모든 예산이 다 지역에 유치하는 것 아니에요. 다 골라 볼게요.

○구자근 위원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그냥 새만금이 아니잖아. 다른 데는 근거가 있잖아.

○오세희 위원 근거가 다…… 사업이라는 건 100%가 아니잖아요.

○구자근 위원 법도 없어요.

○오세희 위원 사업은……

○구자근 위원 이제 법안 발의해 왔다니까.

○오세희 위원 아니지요. 법안 발의했지만 그 내용에서 뭐를 하겠다는 것은 가이드가 다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100% 완성된 데가 없어요. 이런 예산이 주어진다면 이러이런 사업으로 추진해서 완성을 하겠다 이런 거지, 설게 언제고 이런 게 다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백지인데 이 예산을 주면…… 정부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씹니까? 예산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고 진행하는 것…… 지금 앞의 프로젝트가 다 완성됐어요? 완성된 거예요?

○구자근 위원 아니, 그것을 나한테 묻지 마시고……

○오세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계속 그것을 강조하니까. 이것 다 백지인데 왜 예산을 주냐는데, 여기 앞에 있는 게 다 프로젝트 완성해서 다 됐냐고요.

○구자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새만금으로 정해졌어요. 다른 지역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오세희 위원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구자근 위원 새만금으로 정해졌잖아, 그러면.

○소위원장 장철민 일단 이 사실관계는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세희 위원 그러면 앞의 지역을 다…… 산업부에서요 이것 저녁 때 이 지역이 어디 어디 것인가 다 하세요.

○소위원장 장철민 아니, 공모한다잖아요. 지역이라는 게 없는데……

○권향엽 위원 아니아니, 그것은 아니지, 공모하는 건데.

○오세희 위원 그리고 공모……

○구자근 위원 아니, 공모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세희 위원 아니아니, 지금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구자근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오세희 위원 말은 안 했지만 지금 지역을, 대상을 잠재적으로는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이게……

○소위원장 장철민 오세희 위원님, 정부가 아까 그렇게 안 하겠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자근 위원 알고도 지금 감아 주잖아요.

○오세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정말 이 예산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주는데 완성이 다 됐느냐 그것도 전수조사해야지요. ‘이것은 프로젝트가 완성됐냐. 이것은 이제 할 거야. 이것은 10%만 계획안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산이 주어지면 진행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 어디가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것 제가 잘못 아는지 몰라도 이 모든 예산이 프로젝트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완성해 가야 되는……

○오세희 위원 완성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만 하얀 백지라고 하니까…… 이게 예산을 주고 안 주고도, 지역사회라는 것은 균등한 발전인데 새만금이라는 단지를 좋은 취지로 해 봤지만, 안 되니까 여기서 새만금을 넣었지만……

그리고 공모로 간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 하얀 백지다, 지역 편차다…… 아니, 아까 강원도 사업 있고 뭐 있고 다 있거든요, 경상에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구자근 위원 그것 증액되어 있는 것은 다 안 될 겁니다.

○오세희 위원 아니, 그것을 너무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자.

○권향엽 위원 제가 잠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오세희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강승규 위원 저 좀 하지요.

○권향엽 위원 강승규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저도 잠깐 발언할게요.

○소위원장 장철민 강승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승규 위원 저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RE100 산단은, 산단 중에 여러 산단이 있고 산단이 아닌 지역이든 탄소중립 등의 내용으로 특화된, 콘텐츠가 스페셜한 그런 산단을 만드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넓은 의미의 뜻으로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렇지요? 산단 내에 RE100 산단을 만들 수도 있고 산단이 아닌 지역에 RE100 산단을 조성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더라도 지금 구자근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차관계서는 이것은 산단이 아닐 수도 있다, 새로운 산단을 만드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콘텐츠가 스페셜한 산단 중의 산단이든 하여튼 새로운 탄소중립형 산단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강승규 위원 그리고 그게 사업 규모가 클 때는 예타를 받아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강승규 위원 그것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비교 한번 해 볼게요.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산단을—이것은 국토부에서 추진한 거지요—15개 지정을 했어요, 후보지로. 그렇지요? 저희 지역에도 있어요, 하나. 홍성에 미래산업단지가 있어요. 70만 평 지정했다가 51만 평 됐어요. 그런데 이게 23년 3월에 후보지가 발표됐는데 작년 말에 끝나기로 했던, 우리 지역 같은 경우 국가산단의 예타가 아직까지 안 갔어요. 오늘도 제가 아까 낮에 확인을 해 봤더니 아직도 예타가 통과될지도 모르고 있고 언제 될지도 모른대, 작년 말에 끝나기로 한 게.

두 번째, 15개 후보지에서 예타를 신청한 곳이 지금 5개래요. 천안의 180만 평인가 거기는 시작도, 예타 신청도 못 했고. 5개가 신청됐는데요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3개가 다 예타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국가산단 정책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RE100 산단하고 다른 거예요? 산단의 성격은 다르고 RE100 산단이 스페셜한 것도 있지만 산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경쟁력이 있느냐, 무조건 만들어 놓는다고 되느냐. RE100도 탄소중립형 산단 만들면 그게 대성공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절차를 거쳤느냐,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근거가 있느냐? 특별법 만들고 있으니까 지금 예산 반영하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후보지로 지정이 돼 가지고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예타를 통과할지도 모르겠고 이미 15개 중 5개 신청한 곳 중에서 3개는 지금 다 예타 불합격이라니까요.

그게 지금 정부의 산단 정책이고 그런 건데 왜 RE100은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는 이것 다 예산 통과해 주고 그래요? 아니지요?

○권향엽 위원 제가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2026년도 예산편성은 사실은 기재부 예산 당국과도 이미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졌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새만금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새만금을 포함한 2개소 조성을 위한 추가 사업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들 계속 하시는데 2026년도 예산편성의 근거는 산업집적법 제47조에 근거하고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거기에 의하면 ‘국가는 산업입지의 조성 및 입주기업 등의 유치를 위해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 조항에 근거해서 사실은 예산편성을 했던 것 아닙니까? 다만 지금 RE100 산단 특별법을 제정해서 법령에 따라서 대상지를, 입지를 선정한다, 그리고 관련 예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게 현재 정부의 계획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권향엽 위원 그래서 RE100 산단 특별법 제정이 안 됐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웬 예산을 갖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제가 조금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지요.

○김동아 위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가 반도체법이 없지만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김동아 위원** 지금 반도체법이 없는데 왜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하나랑 저는 같은 논리로 보고요. 이미 산업집적법도 있고 산업입지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또 특히나 노후 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RE100 산단에서 노후 산단을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외에도 스마트그린산단인지 여러 가지, 탄소중립 산단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소중립 지원 산단, 대표적 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구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

○**김동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해 주시는 게……

○**소위원장 장철민** 구자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자근 위원** 이것은 제가 새만금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권향엽 위원** 그렇지요.

○**구자근 위원** 존경하는 오세희 위원님께서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분명히 명분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되짚은 것 아닙니까?

지금 분명히 이렇게 예산서에 ‘새만금’이라고 표기되어서 오면 지역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은 원래 이렇게 오지 않고 해도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권향엽 위원** 그렇지요.

○**구자근 위원** 당연히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런 말씀을 해도 그렇게 응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내가 지난번 전체회의 때 ‘공모과정 거치실 거지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공모과정을 거치신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다른 지역들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희망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권향엽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위원들이 증액 요건을 갖췄는데, 호남 지역의 다른 지자체에서 많은 수요가 있으니까 새만금 포함해서 2개소 해서 증액 요건으로 더 들어와서 그 지역들에 대한, 다시 지정되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정부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시그널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NDC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2030년, 35년 그러면서 계속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아요, 탄소 선도모델. 그래서 지난 정부 때 산업부에서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미를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왜 그것에 추가로 1개소 더 할 수 있는, 지역에 노후 산단이 그렇게 많은데, 창원부터 해서 반월부터 해서 시화부터 해서 남동부터 해서 전국에 수도 없이 많은 노후 산단들이 있는데 증액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일언지하에 그렇게 진행을 시키는데.

지금 국가에서 그렇게 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노후 산단에 입주해 있는 뿌리기업들, 예를 들어 주물, 뭐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도금이나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 기업을 하지 못하게, 이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RE100 산단 한다고 새로운 산단 조성해서 거기다가 파격적인 인센티브 주고, 내용 보니까 해외 홍보 활동비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고, 아직 뭐 할지도 모르는데. 기업 유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 상대적으로 기존 노후 산단들, 전국에 있는 산단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산단에 입주해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정권이 바뀔때로 해서 이 업을 접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람들이 자력으로 탄소중립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고자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 선도모델을 노후 산단에 진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RE100은 RE100대로 가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소위원장 장철민 이제 정리하시지요.

○구자근 위원 그래서 저는 삭감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차관님, 그런데 저는 계속 듣다가 궁금한데 기존 노후 산단은 지정 안 하는 거예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기존 노후 산단이나 그런 부분은 다른 트랙으로 해서 최대한 지원하고 노후 산단 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저도 하나, 아까 권향엽 위원님도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 예산편성에서 RE100 산단에 261억의 지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을 수립하는 근거가 어떤 법에 의해서 한 거예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산업집적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산업집적법?

○구자근 위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강승규 위원 산업집적활성화법에 이렇게 RE100 산단처럼 특수하게 어떠한 조성이나 지원에 관한 근거가 있어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산업단지 위에 RE100 산업단지 개념이 씌워져서 같이 추진하는 파트도 있고 또 완전히 신규로 하는 파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은 산업집적법에 의해서 기존의 산단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넣어 놓은 것입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특별법은 왜 만들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특별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산단 플러스 추가적인 것까지도 다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추가적인 인센티브들은 특별법에 근거가 있어야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RE100 산단에 들어가는 261억이라고 하는 것에 그런 인센티브든 뭐든 산단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다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추가로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기존의 산업집적법 가지고는 지금 이 예산을 수립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근거가 안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 특별법에 근거해서 필요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했는데 반도체 클러스터는 첨단전략산업법이 있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

서 반도체를 더 충분히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민주당 반대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뭉뚱그려 가지고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금도 지원하는데……’, 그것은 근거가 있다니까요, 첨단전략산업법.

○**김동아 위원** 이것도 산업집적법에 근거가 있다니까요?

○**강승규 위원** 지금 경쟁이 심하니까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서 좀 더 충분하게 지원을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RE100 산단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고 아까 구자근 위원처럼 홍보도 해 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특별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도 없이 어떻게 예산부터 수립하나 이거예요.

○**소위원장 장철민**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산업집적법에 있다니까요?

○**소위원장 장철민** 차관님, 증액하면서 기존 산단 대상으로 넣으면 안 돼요? 지금 형평성 문제가 있고 사실 기존 산단들도 RE100 산단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은 맞긴 맞잖아요. 증액하면서 기존 산단 두 군데 넣으면 안 돼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기존 산단이 나중에 공모해 가지고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놓고……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RE100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리해 놓고 해야지.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아예 기존 노후 산단 두 군데, 일단 예산은 여기에서 증액안으로 하고 다만 조건을 지금 정부 원안에 담겨 있는 곳과 두 군데 추가하면서 기존 노후 산단을 공모하면서 포함시키는 걸로 해서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김동아 위원** 이런 식이면 구미 산단도 다 예산 깎지, 뭐. 우리가 미쳤다고 다 동의해요?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안 돼요?

○**김동아 위원** 다른 산단 것 다 깎지, 뭐. 이런 식으로 지엽적으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소위원장 장철민** 이것 아니에요? 기존 노후 산단 두 군데 추가시켜서 311억 증액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구자근 위원** 아니, 그러면 부처에서 곤란할 겁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곤란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요.

○**구자근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기존 산단들이 왜 탄소중립 모델로 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RE100 산단은 순수하게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산단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RE100 산단에 근거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큰 틀에서 뭉뚱그려서 260억 해 댔지만 결국은 나중에 RE100 산단을 하게 되면 계통 안정성 등 여러 가지를 위하면 조 단위가 넘어갈 거거든요. 그것은 추후의 문제고.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정부에서 예산 수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일반 지자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신규 사업도 기본적으로 용역을 줍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구자근 위원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260억, 앞으로 조 단위 이상이 들어갈 이 사업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기본계획을 하나 짜든지…… 있어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실시계획 있어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자근 위원 용역 결과가 없잖아요. 내가 오늘까지 계속 부처에 이야기하니까 부처의 답변이 뭘 줄 압니까? ‘없음. 의원입법으로 특별법 제정해서 할 것’.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특별법 통과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산집법으로 뭉뚱그려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절차들을 거쳐 주고, 이게 천문학적 수치가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뭘로 설득시킬 겁니까, 그러면?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지금 특별법의 의원입법으로 돼 있는 부분 중에서 말씀해 주신 신규 인센티브나 그런 것 관련한 예산을 이쪽에다가 반영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기존의 산단 부분에서도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산업단지 개념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을 줍……

○강승규 위원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차관님. 이걸 그렇게 정말……

○구자근 위원 차관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다만 그렇게 해 놓고 수요가, 예산이라는 게……

○권향엽 위원 아니, 지금 그것은 너무나 침소봉대하는 것 같습니다.

○강승규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차관님 그런 얘기를 하면 전국의 전문가들이 다 웃어요. RE100 산단을 기존 산단의 그것으로 만들어 놓고 추진하자?

○소위원장 장철민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강승규 위원 정말 소가 웃을 일이에요. 차관님,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비판을 받으려고 그렇게……

○김동아 위원 차관님, 탄소중립 산단이 법이 있어요? 탄소중립 산단을 구미 산단으로 지정할 법이 있습니까? 탄소중립 산단을 왜 구미로 지정하셨어요? 법적 근거가 있어요? 탄소중립 산단을 구미 산단으로 지정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공모를 다 받으셨습니까, 전부 다? 모든 절차에, 각 지방자치단체 전부 다 공모를 받으셨어요? 용역하셨어요, 구미 산단 지정하는 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어떤 예산이 됩니까, 지금.

○권향엽 위원 여기에서 지금 보면 현재 RE100 산단 전체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인프라 적기 구축을 위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구자근 위원 아니, 공모 절차 거쳤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구미 공모 절차 거쳤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러니까 인프라 적기 구축을 위한 것이고. 산업입지법에 의하면 사실은 RE100 산단 특별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만이나 도로, 용수 그런 산단 지정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승규 위원 아니, 예산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지요, 예산이.

○구자근 위원 계획을 세워야 되지요. 계획을 세워서 들어와야 되지.

○권향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 세우는데……

○소위원장 장철민 일단 여기서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권향엽 위원 그중에 ESS하고 관련한 설계비 50억 포함한 311억 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강승규 위원 예산 내용이 확 달라요.

○권향엽 위원 그런데 무슨 1조 원 이상 들 것이라고 지금 미리 침소봉대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십니까.

○소위원장 장철민 일단은 논의가 정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져서 지금 여기서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사실 제가 웬만하면 끝내고 저녁 정회 안 하고 그냥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이 보류사항들 정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해 보입니다.

일단은 정회하고, 지금 이 사안도 그렇고 기존에 보류됐던 사안들 정회시간에 다 정리한 다음에 이후에 다시 개의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정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녁과 보류사항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9시29분 회의중지)

(21시2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장철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님, 일단은 RE100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은 대충 논의가 됐으니까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보류됐던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은 추가적으로 더 논의할 것들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협의 내용이 증액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밑의 탄소중립 선도모델 구축이나 이런 증액 부분 말고 인프라 적기 구축을 위한 증액 필요 등의 RE100 산단 구축지원 관련된 증액 부분은 일단 이의 없는 것으로 하고요. 감액안의 일부만 좀 조정해서 가는 게 어떠냐고 의견이 모였는데 어느 정도 감액할지에 대해서는 구자근 위원님께서 조금 의견을 주시고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자근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회할 때 여야 간에 합의한 대로 위원장님께서 일괄적으로 AI 융합하고 무보하고 이것하고 통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서로 협의된 내용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무방하지 싶은데요.

○소위원장 장철민 그렇게 할까요?

○구자근 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속도감이 있고…… 그래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만 이야기해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아직 미리 심사하지 못한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그 사업을 논의를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단 관련된 보류사업들 협의된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행정실도 이후에 정리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보류되었던 사업들이 아까 무역보험기금 출연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AI 신속상용화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방금 이야기했던 산업단지 환경조성, RE100 산단 구축지원 관련된 사업이 있었고 특장차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요, 가스안전공사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가스안전공사 관련된 부분과 특장차 부분은 강승규 위원님과 정동만 위원님께서 철회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1000억 감액 그리고 AI 신속 상용화 관련해서는 15% 감액 그리고 산업단지 환경조성 중 RE100 산단 구축지원은 20% 감액하는 것으로 일단은 협의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산자부가 동의하실 수 있으신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우선 무보기금은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본부장이 1000억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1000억……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1000억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사안들이 제 사안이어서, AI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15% 감액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RE100 산단 관련 예산 20% 감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특장차와 가스안전공사는 원안대로 해서, 철회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정부 동의 의견이 있었으니까 혹시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구자근 위원** 무보.

○**소위원장 장철민** 예, 무보……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당초 무역보험기금 출연 5700억……

○**소위원장 장철민** 5700억 감액 의견이 대미 투자 관련해서 있었고 아까 RG특례보증이란 이것은 정리가 덜 되긴 했는데, 일단 1000억 원 감액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돼서……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그 1000억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리고 RG특례보증 부분하고 증액 의견 2건이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다들 대체로 동의하시는 상황이었거든요. 혹시 RG특례보증이란 증액 의견 두 가지에 대해서는…… 수출시장 다변화 600억, 200억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적인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증액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건은 증액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협의된 사항들 그리고 정부가 동의한 사안들에 대해서, 여러 건이긴 한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지금 아예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동아 위원** 잠깐 정리 차원에서 그러면 RE100 산단 관련해서 산업단지 환경조성, 나머지 증액 사업은……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정리를 할 텐데 그 뒤의 내역사업인 탄소중립 선도모델 구축의 100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 아까 정부 동의가 있었고요, 밑에 정부가 죽 다 동의를 했었고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RE100 산단 말고 탄소중립 선도모델 구축 이하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단지 환경조성 내역사업 중에 탄소중립 선도모델 구축 100억 증액 이하 관련된 내용은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정리된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은 이전 없고 동의합니다. 다만 지역 명칭을 다는 것은……

○소위원장 장철민 지역 명칭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삭제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장철민 예, 새만금·부산·오송, 여러 지명이 나와 있는데 지명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다 없애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결위 가도 지역명은 다 뺍니다. 결국은 다 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한 번 더 보고해 주십시오. 더 정리해야 되는 게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보고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확인을……

○소위원장 장철민 잠시 50페이지 봐 주십시오.

50페이지에 가스안전공사 지원이 아까 정동만 위원이 안 계셔서 감액안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고 보류됐었는데 여기가 증액안도 있었습니다. 이게 3억 5000만 원 증액안도 저희가 논의를 안 하고 넘어갔어서, 일단은 3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것은 정부가 신중 검토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금 이 부분……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가 동의를 하셨던 거지요, 3억 5000만 원 증액 부분?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가스안전공사 관련해서 3억 5000만 원 증액하시는 것 말씀이시지요?

○소위원장 장철민 예.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 부분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은 다 괜찮은데 문제가 이 사업 항목에다가 이것을 넣을 수가 없는 테크니컬한 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세부사업명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그러면?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하려면 이것을 별도의 신규 사업으로 해야지, 이 예산 항목에 들어갈 수 없는……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하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이 3억 5000만 원 증액을 ‘가스안전공사 모바일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이런 사업명으로 하면……

신규 사업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거기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액 20억 원은 철회, 3억 5000만 원 증액 건은 신규 사업으로 증액 정리하겠

습니다.

다음 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62쪽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앵커기업-지역대학전략기술공동개발 사업은 1개 과제 신규 선정을 위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금액 증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지역을 특정하는 부분만 삭제해 주시면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런데 지역명이 어디 있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경북 지역……

○김동아 위원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제안서 거기에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렇구나.

어차피 지역명을 넣게 되면 다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다 빼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명 삭제하고 증액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은 4번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지역균형발전 활성화 지원은 소통강화 및 지원 등을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없으시면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5번입니다. 지역산업위기대응입니다.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은 대출한도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위해서 86억 원 증액과 또 57억 원 증액의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니까 86억 원을 소진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커서 57억 원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57억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리고 제가 하나 설명을 못 드렸는데, 뒤에 보면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에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30억 증액 건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6번입니다. 메가시티 협력 첨단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초광역권 메가시티 협력산업의 밸류 체인 강화를 위해서 19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므로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7번입니다. 생활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한국안경산업고도화 육성 관련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K-아이웨어메타버스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DB 기능 고도화를 위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사업에 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친환경 생활소비재 글로벌 공급기지 조성을 위해서 6억 5000만 원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3D융합안경테 제조기반 구축 관련해서 3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5건 모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세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안경산업은 보건복지부 것 아니에요?

○허성무 위원 3D가 들어갔으니까.

○오세희 위원 아, 3D.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안경 제조……

○오세희 위원 아, 제조.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5건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8번입니다.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규 사업입니다.

뒤 페이지까지 신규 사업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번 관련해서는 선도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등 특별보조금 200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번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시범사업입니다. 기술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패키지 지원 등에 260억 원 신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번, 지역산업위기대응 관련해서는 위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위기 극복을 위해서 60억 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 11번입니다.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구축 관련해서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단 내에 자원순환시스템 설비 구축 등을 위해 40억 원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포항철강산단 및 연계산단 관련해서는 산업 간 순환이용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서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2번 산업단지 5G 특화망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해서는 제조업 AI 전환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5G 특화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20억 원 신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말씀해 주신 모든 사안에 대한 증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와 똑같은 취지로 지역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지역을 삭제한다는 조건하에 금액의 증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67페이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사업 1번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2025년 산학융합지구 조성이 완료되는 4개 지구 그리고 신규 1개 지구 지정을 위해서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조성이 완료되는 4개 지구에 대해서만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30억 원 안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도 지역 부분은 삭제한다는 조건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그러면 지역명을 명기하지 않고 30억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6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입니다.

지출 사업, 연번 1번입니다. 기술성과활용 촉진입니다.

국가기술은행 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의 플랫폼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므로 100억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번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 융자입니다.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R&D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전년도 수준인 3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300억 증액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 중에 추가 보완해야 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수석님?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0분만 주십시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지금 의결하기 위해서 이 심사 내용 정리를 해야 된답니다, 행정실이.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도 정리가 되면 바로

개의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1분 회의중지)

(22시0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장철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해 정리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다 놓여 있을 텐데요.

수석전문위원님, 정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026년도 예산안 등 소위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회계별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총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세출에서 6676억 51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152억 3800만 원, 그다음에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서는 329억 90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2741억 6100만 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는 30억 원, 그다음에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에서는 400억 원 증액이 되었고 총증액은 1조 33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으로 의결하는 걸로 되었고, 부대의견은 4건이 채택되었습니다.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2쪽의 부대의견 안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제시해 주신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정부 측 의견은 1차관님만 들으면 되는 건가요?

○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장철민 그러면 정리된 자료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운데 2026년도 예산안 중 산업통상부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산업통상부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내용에 대한 자구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통상부 문신학 제1차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8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강승규 구자근 권향엽 김동아 김종민 박상웅 오세희 장철민 정동만 허성무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성소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부

차관 문신학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정책기획관 안창용

산업공급망정책관 나성화

첨단산업정책관 최우혁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제경희

지역경제정책관 김규성

중견기업정책관 최연우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원전전략기획관 양기욱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 전용길

지식재산처

차장 목성호

기획조정관 구영민